

M 45-97 | 2008. 9 |

제 97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8. 9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전문연구원 mkl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8-7340
김연수 연구원 yunsoo@krei.re.kr TEL 02-3299-4307

CONTENTS

농업 · 농정 동향

- 3 중국 · 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 9 미국의 조사료 수급 동향

국제기구 동향

- 27 DDA, 2008년 9월 농업협상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37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9)
- 4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9)
- 5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9)
- 69 2008~09년 세계 및 호주 곡물 전망

세계 농업 브리핑

- 85 세계 농업 브리핑 (2008.9)

세계농업통계

- 99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 102 세계 쇠고기 통계



농업·농정 동향

중국·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미국의 조사료 수급 동향

중국·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이 대 섭

1. 개요

뉴질랜드와의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같은 제조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과의 FTA를 우선 체결하였으나, 상품협상은 체결하고 서비스와 투자 협상을 유보하는 방식의 FTA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 등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008년 10월에 발효되는 중·뉴질랜드의 FTA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공동연구가 종결된 시점에서 향후 FTA 협상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경위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동기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대미 견제와 차별화라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리더십 강화로 인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해외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중국경제에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중국, 뉴질랜드 FTA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ldaeseob@krei.re.kr, 02-3299-4169)

한편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최근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대중 교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체결이 뉴질랜드에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CER(Closer Economic Relationship) FTA를 체결한 호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호주를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3년 FTA의 통상절차인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FTA 체결시 양국의 GDP, 무역, 복지 및 기타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4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뉴질랜드 방문 이후 양국 간에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전 총리가 2005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FTA 조기 협상을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 4월 7일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4.7일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10.1일부터 발효되었다.

3. 주요내용 (농림수산부문을 중심으로)¹⁾

현재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96%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1억 1,150만 NZ\$의 관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액 기준으로 약 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혹은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현재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96%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1억 1,150만 NZ\$의 관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중·뉴질랜드 FTA 관세철폐 계획

관세범위	관세철폐시기	비고
0.1%~5%	즉시철폐	뉴질랜드 대중국 수출의 약 35% ¹⁾
5%~20%	2012년까지 철폐	뉴질랜드 대중국 수출의 약 31%
20% 이상	2013년까지 철폐	20% 이상인 상품은 발효첫날에 20%로 시작
기타	2019년까지 철폐	
모직물(Wool) 및 모직 상의(Wool tops)	특정국관세할당적용(Country-Specific Tariff Quota)	

주: 1)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관세범위 0.1%~5%에 해당하는 상품 비중이 약 35%라는 의미임.

산림분야

현재 중국은 뉴질랜드산 원목과 제재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FTA협상에서는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몇몇 제품에 한하여 추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가공목재 및 종이제품에 관해서는 중국이 WTO와의 협정에 따라 FTA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도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1) 뉴질랜드는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이므로 중국의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육류

쇠고기, 양고기, 그리고 식용부속고기는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수산물

수산물 중 관세가 5% 이하는 즉시철폐, 5% 이상은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과일 및 채소

사과는 2012년까지, 키위는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낙농

뉴질랜드산 버터, 액상우유 및 치즈는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Mid-term review mechanism)를 포함시켰다. 이 중 탈지 및 전지분유(2019년까지 관세 철폐)는 중간심사조치 적용 품목으로 중국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상품무역위원회가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년동안 관세 삭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낙농품 중 관세 철폐 기간이 10~12년인 제품들은 물량기준으로 관세가 철폐된 후 5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 수량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기준은 표 2와 같이 4개의 부류로 분류하여 각 부류가 표 3에 해당하는 적용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즉, 상품이 1부류에 속하고 2009년에 수입량이 1,365톤 이상이면 특별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를 포함시켰다.

표 2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낙농품목

부류(상품분류)	HS 코드	상품 세부 내역
1	04012000	지방함량이 1% 초과 6% 미만인 비농축 또는 가당의 우유, 크림
	04013000	지방함량이 6%미만인 비농축 또는 가당의 우유, 크림
2	04021000	고형질 지방 함량이 1.5%이하인 우유, 크림
	04022100	고형질 지방 함량이 1.5% 초과인 무가당 우유, 크림
	04022900	지방함량이 1.5% 초과인 가당 우유, 크림
	04029100	무가당 농축 우유, 크림(고형질 제외)
3	04051000	버터
	04059000	기타 우유에서 추출한 지방, 유지
4	04061000	신선치즈(유장, 응유 포함)
	04063000	가공치즈(파우더로 만들거나 갈지 않은 것)
	04069000	기타 치즈

주: 1) 협정문 13조에 따라 특별 세이프 가드에 적용되는 농산물을 나타낸 것임.

표 3 특별 세이프가드(낙농품) - 기준 수량

단위: 톤

바스켓	1	2	3	4
발효시점	1,300	95,000	9,400	3,600
2009	1,365	99,750	9,870	3,780
2010	1,433	104,738	10,364	3,969
2011	1,505	109,974	10,882	4,167
2012	1,580	115,473	11,426	4,376
2013	1,659	121,274	11,997	4,595
2014	1,742	127,309	12,597	4,824
2015	1,829	133,675	13,227	5,066
2016	1,921	140,358	13,888	5,319
2017	2,017	147,376	14,582	5,585
2018	2,118	154,745	15,312	5,864
2019	2,223	162,482	16,077	6,157
2020	2,335	170,606	16,881	6,465
2021	2,451	179,137	17,725	6,788
2022		188,094		
2023		197,498		

주: 1) 협정이 발효된 해를 기준으로 연도별 비율로 할당된 발효조건(Entry into Force) 기준수준을 나타낸 것임.

모직물 (Wool)

중국은 2009년에 25,000톤의 모직물과 450톤의 모직물로 만든 상의(Wool tops)에 특정국 관세할당(Country-specific tariff quota)을 부여하고 2017년까지 연간 5%씩 증가시키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특정국 관세할당 이외에 중국의 전체 모직물 쿼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양허제의 품목

양허제의 품목 중 농산물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214개 품목 중 53품목이다.

표 4 양허제의 농산품

품목명	HS 8단위 개수
곡물	15
곡물의 분과조분·밀가루·전분	10
동식물성 유지	19
당류·설탕·과자	6
비료	3

4. 원산지 규정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 규정은 중국이 체결한 이전 FTA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중국이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체결한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이용하였지만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한 혼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5. 중·뉴질랜드 FTA 주요 특징

중·뉴질랜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중국측만 양허 제외품목을 설정하였고 자국의 민간 품목인 축산물과 모직제품에 대하여 약 3년 정도 더 긴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나 중간심사를 통한 관세 삭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원산지규정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는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후 동일한 시간이 경과해도 특정한 협정에 대해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래칫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에서 지식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심각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면에서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구상하는데 있어 참고할 부분이다.

참고자료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문, 2007(www.ChinaFTA.govt.nz)

미국의 조사료 수급 동향*

-최근 목건초 수급 불균형과 요인-

허 덕

1. 머리말

미국에서는 매년 약 1억 5천 내지 1억 6천만 톤의 목건초가 생산되어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목건초 전체 생산액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알팔파는 영양가 측면에서 뛰어나 주로 젖소용 조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1조사료는 반추가축이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료이다. 일반적으로 소 전용으로 이용하는 사료에는 사료 건물(乾物) 중 1/3 이상의 조사료가 필요하다. 특히 젖소사료 중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비율은 원유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지방률 향상 측면에서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균형적인 급여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억 5천 내지 1억 6천만 톤의 목건초가 생산되어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 생산액은 88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17조원 정도, 1달러=1,070원) 이상이 되는데, 작물부문에서는 옥수수, 대두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이다. 목건초 전체 생산액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알팔파는 영양가 측면에서 뛰어나 주로 젖소용 조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6년 알팔파 총 수확면적은 전년도보다 조금 낮았는데, 텍사스주 등 중남부에 덮친 한발의 영향으로 미국 전체 목건초 생산량의 상당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7년 5월 1일에는 목건초 재고량이 6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목건초 가격이 상승하였다. 2007년에 중남부의 기후는 회복되었지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에서 발생한 한발의 영향으로 목건초 생산량이 줄어들자, 2008년에 들어서도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본 내용은 畜産の情報 8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376)

최근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이나 유량종자 등 사료원료 가격상승에 따라 미국 축산농가들도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목건초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에 의한 영향은 적지 않다. 미국의 조사료 주산단지들은 매년 많은 양의 목건초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 관계자에게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본문에서는 조사료 주산지인 미국 서부지역의 알팔파 생산 동향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목건초 수급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목건초 생산 동향

목건초의 종류와 특징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목건초를 1)알팔파, 2)목초작물, 3)농지재배 건초, 4)야건초의 네 종류로 구분한다.

알팔파는 두과(荳科)의 다년생 목초이다. 옥수수가 농후사료의 주력이라면, 알팔파는 조사료의 주력이다. 영양가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단백 함량이 많고, 칼슘 등 미네랄이나 비타민류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과목초의 특성인 섬유질 소화성은 비교적 낮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내한성이 뛰어나 적지(適地)에서는 가치가 높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첫 번째 컷팅 후 2~4회, 많은 지역에서는 8~10회 수확할 수 있어 건초, 사일리지로 많이 이용된다. 미 서부에서 중서부 북부를 주산지로 하며, 영양가가 높아 주로 젖소용 사료로 이용된다.

목초작물에는, 연맥, 보리, 밀, 호밀이 있으며, 북부에서 서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주산지이다. 주로 육용우 전용으로 생초, 건초, 사일리지로 이용된다. 농지재배 건초에는 두과목초인 적색 크로바, 벼과목초인 티모시, 오차드그래스, 툴페스큐, 버뮤다그래스 등이 포함된다. 적색 크로바는 두과목초로 옥수수와 윤작하기에 적절하며 내한성이 강하지만, 여름철 고온과 건조함에 약하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지역이 제한된다.

벼과목초 중 티모시는 지력이 낮은 토양에서도 잘 생육하며 북동부나 중서부 북부의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넓게 재배되며, 이외에 서부의 워싱턴주에서도 재배되는데 특히 수출 수요가 높다. 툴페스큐는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하고, 남부에서 재배되는 유일한 목초이다. 남부나 중동부에서 육용우 전용으로 채초, 방목용으로서 넓게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버뮤다그래스는 내습성·내염성에 강하고, 내한성에도 비교적 강한 채초, 방목용의 초종이다. 다습한 남부의 비옥토에 가장 적합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남부, 콘벨트 지대 남부나 메릴랜드주 북부에서도 재배되어 토양 보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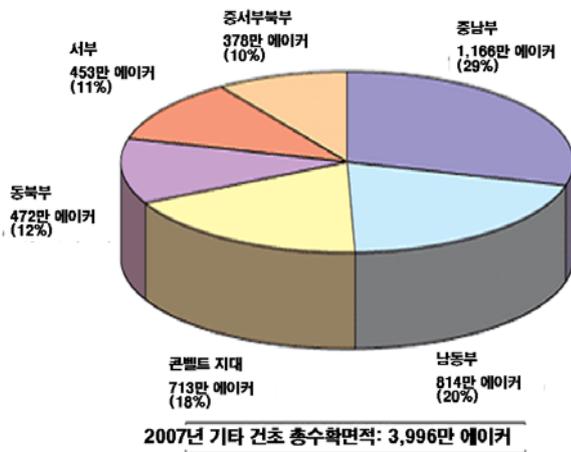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목건초를 (1) 알팔파, (2) 목초작물, (3) 농지재배 건초, (4) 야건초의 네 종류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의 정의에 따라 목건초를 ‘알팔파’와 ‘기타 건초’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주요 생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미국을 1) 서부¹⁾, 2) 중남부²⁾, 3) 콘벨트 지대³⁾, 4) 중서부 북부⁴⁾, 5) 남동부⁵⁾, 6) 북동부⁶⁾의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목건초의 주요 생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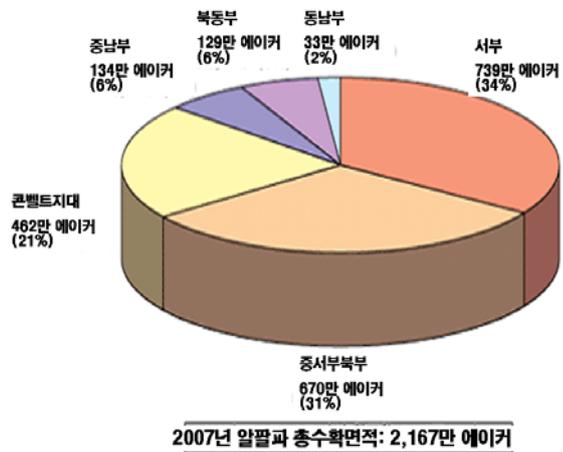
수확 면적

그림 1 기타 건초 수확 면적의 지역별 점유율, 2007년



자료 :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그림 2 알팔파 수확면적의 지역별 점유율, 2007년



자료 :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2007년 미국의 목건초 수확면적에 대해 살펴보면, 알팔파가 전년대비 1% 증가한 2,167만 에이커, 기타 건초가 1% 증가한 3,996만 에이커로, 전체적으로 1% 증가한 6,163만 에이커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07년 미국의 목건초 수확면적에 대해 살펴보면, 알팔파가 전년대비 1% 증가한 2,167만 에이커(876만ha: 1에이커=0.4047ha), 기타 건초가 1% 증가한 3,996만 에이커(1,617만 ha)이다. 전체적으로는 1% 증가한 6,163만 에이커(2,494만 ha)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 1) 서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곤,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주
- 2) 중남부: 아칸소,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주
- 3) 콘벨트지대: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미주리, 네브래스카, 오하이오주
- 4) 중서부 북부: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주
- 5) 남동부: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 6) 북동부: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별로 살펴보면, 알팔파 수확면적은 사우스다코타, 몬타나,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아이다호주 등이 상위를 차지하며 서부에서 중서부 북부에 걸친 15주에서 전체의 65%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기타 건초 수확면적은 텍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주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아칸소를 중심으로 한 중남부가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켄터키주,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부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 및 생산성

2007년의 목건초 생산량은 알팔파가 전년대비 1% 증가한 7,258만 톤, 기타 건초가 11% 증가한 7,773만 톤이었다. 기타 건초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지만, 이는 전년 중남부에서 발생한 한발의 영향에 의해 단수가 낮아졌던 지역이 2007년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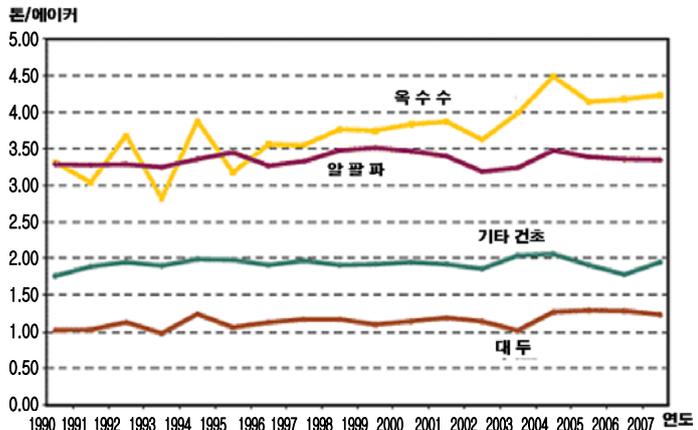
목건초 생산량은 90년 이후 한발 등 기후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유지하는 추세인데 이는 목건초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07년 목건초 1에이커 당 평균단수는 알팔파 3.35톤(ha당 8.28톤), 기타 건초 1.95톤(동 4.82톤)으로 90년 초와 비교하여 모두 비슷한 수준인 반면 옥수수나 대두의 단수는 동기간 동안 20~30% 정도 증가했다.

알팔파 생산량을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사우스다코타, 아이다호, 아이오와, 네브래스카가 상위를 차지하여 수확면적 순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수확면적이 34%였던 서부지역의 점유율이 전체의 43%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동 지역의 알팔파 수확지 대부분이 관개가 정비되어 있어서 평균단수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30% 정도 높기 때문이다.

기타 건초 생산량이 상위인 주는 수확면적과 거의 같은 순위이다. 미국 전체의 기타 건초 수확지 중 관개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목건초 생산량은 90년 이후 한발 등 기후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지하는 추세인데 이는 목건초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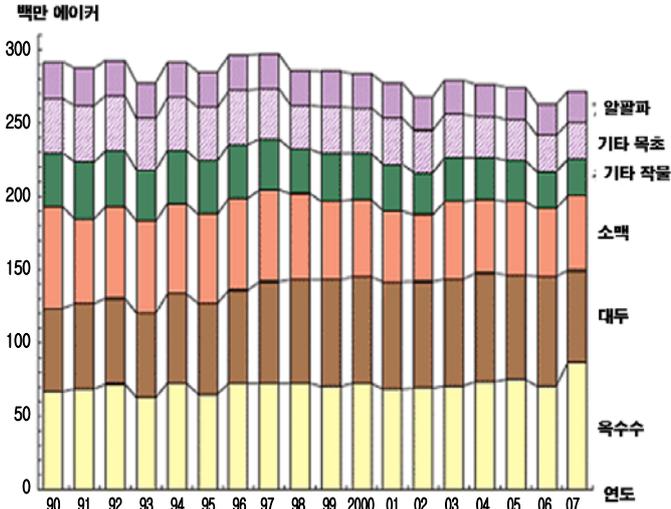
그림 3 주요 작물의 단수 추이



자료 :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목건초 수확 면적 추이와 기타 작물과의 비교

그림 4 주요 작물의 수확 면적 추이



자료 :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미국의 주요 작물 총 수확면적은 90년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한 후 97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면적이 증가한 반면, 수수, 보리, 연맥 등 옥수수 이외의 사료작물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에는 옥수수의 에탄올용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작부면적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각 작물의 작부면적이 가격 동향이나 주산지에서의 운작 등에 의해 변하는 가운데, 목건초 총 수확면적은 90년대 초 이후 거의 유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타 건초 수확면적은 증가 추세인 반면 알팔파는 9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지역별 목건초 생산 동향

종류별 수확 면적 추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알팔파는 젖소용 사료로, 기타 건초는 육용우, 특히 육용 번식암소 전용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수확면적은 각 축종의 사육 동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알팔파 수확 면적과 젖소 사육두수

알팔파 수확면적은 90년대 초 이후 거의 1년마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에 있다. 2007년 수확면적을 90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15% 감소하였다. 알팔파 수확면적의 감소 요인으로는 90년대 초 이후 젖소 사육두수 감소추세와 최근 옥수수, 대두, 밀 등 경합작물의 작부면적 증가를 들 수 있다.

알팔파 수확 면적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1990~2007년에 걸쳐 약 10% 증가한 서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추세다. 특히, 북동부의 수확면적은 90년 대비 약 40% 감소, 중서부 북부는 약 20% 감소, 콘벨트 지대에서는 30% 정도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알팔파 수확면적은 90년대 초 이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에 있다. 알팔파 수확면적의 감소 요인으로는 젖소 사육두수 감소추세와 최근 옥수수, 대두, 밀 등 경합작물의 작부면적 증가를 들 수 있다.

알팔파 주산지인 서부에서 중서부 북부에 이르는 지역은 미국의 주요 낙농지대로 90년대에는 젖소 사육두수가 거의 매년 줄어들다가 2000년에 들어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유가(乳價)상승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 초 사육두수와 1990년의 동기간을 비교하면 약 10% (93만 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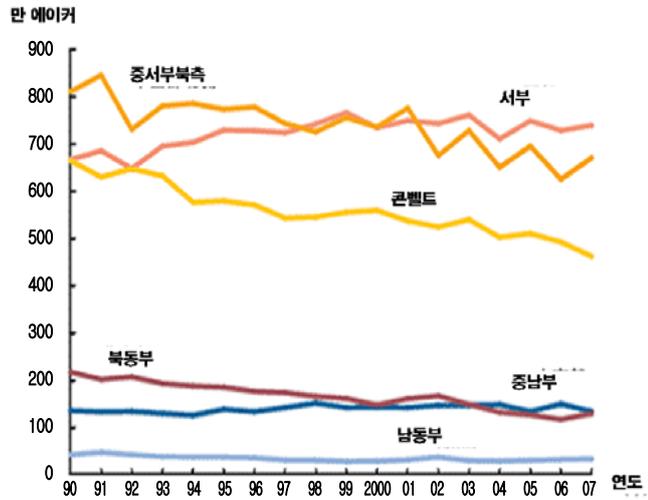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 사육두수가 1990~2008년 초에 걸쳐 약 80% 증가한 것 이외에는, 위스콘신주 주변의 중서부 북부가 32% 감소, 뉴욕이나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북동부가 24%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알팔파 수확면적도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건초 수확면적과 육용 번식 암소 사육두수

기타 건초 수확면적은 90년대 초 이후 증가 추세였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다. 2007년 수확면적을 1990년과 비교하면 중남부 4개주에서 약 40%, 남동부에서 약 30% 증가하여 미국 전체적으로 1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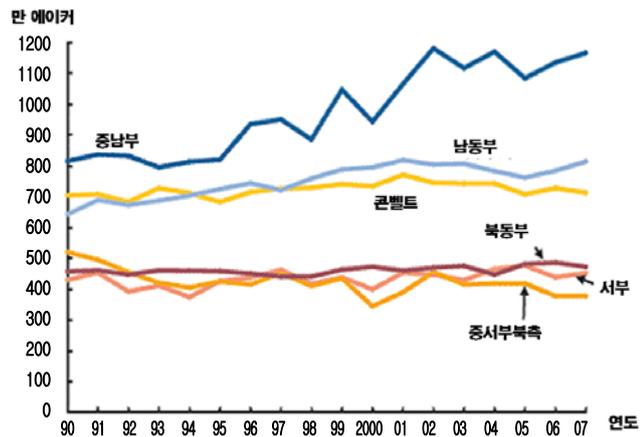
육용우 번식지역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지만 중남부에서 육용 번식암소의 30%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는 90년대에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96년 비육용 송아지가격 침체와 남서부의 한발 영향으로 감소세로 변하였다. 2006년 중남부지역의 한발과 사료가격 상승, 2007년 남동부지역의 한발 영향 등으로 번식 경영의 규모 확대가 억제되어 사육두수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초 육용 번식암소 사육두수를 90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최대 사육지인 중남부지역은 약 4% (37만 두)가 증가하여 그 지역의 기타 목건초 수확면적 증가에 공헌하였다.

그림 5 지역별로 본 알팔파 수확 면적 추이



자료 :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그림 6 지역별 기타 건초 수확 면적 추이



자료 :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서부 지역의 알팔파 생산 동향

육용우번식 경영이 미국 전체에 산재하고 있어 기타 건조 수확면적은 중남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해 왔다. 알팔파 수확면적은 서부를 제외한 지역의 젖소 사육두수 감소와 경합작물의 전작(轉作)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서부지역의 경우 알팔파 생산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미국에서 수출되는 목건초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되고 있다.

그림 7 서부지역의 목건초 주요 산지



서부지역의 알팔파 주산지

미 서부 최대의 알팔파 생산지는 캘리포니아주 중남부에 위치하는 샌워킹 벨리이다. 주위가 산맥으로 둘러싸인 광대한 평지는 북부의 새크라멘토 벨리와 함께 캘리포니아 센츄럴 벨리로 불릴 정도로 농업지대이다. 같은 주 남단부의 임페리얼 벨리에서는 알팔파 이외에 수출수요가 높은 수단그래스 등도 재배되고 있다. 다른 주를 보면, 북쪽은 워싱턴주(콜롬비아 베이슨)나 오레곤주(클레이머스 베이슨, 크리스마스 벨리 등), 남쪽은 아리조나주나 뉴멕시코주, 또한 아이다호, 몬타나, 콜로라도주 등 서해안 연안주에서 내륙부에 이르기까지 알팔파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관개에 의한 생산성 향상

서부지역은 알팔파 생산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미국에서 수출되는 목건초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되고 있다.

알팔파의 미국 평균단수가 1에이커당 3.35톤(ha당 8.3톤)인데 비해 서부지역은 아리조나주 8.30톤(20.5톤/ha), 캘리포니아주 7.20톤(17.8톤/ha), 워싱턴주 5.40톤(13.3톤/ha)이다. 또한 주의 대부분이 사막인 네바다주도 4.90톤(12.1톤/ha)으로 생산성이 높고, 서부 평균도 4.24톤(10.5톤/ha)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도 30% 가깝게 높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 알팔파 수확지의 80%가 주로 지하수에 의해 경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개경지 이용은 사막기후로 건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부지역의 알팔파 생산성 향상에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생산 주기와 올레 수확 상황

서부지역은 알팔파 생산지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생산 주기도 다양하다. 알팔파는 통상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봄에 따뜻한 지역부터 차례차례 수확이 개시된다. 주산지를 보면 겨울이라도 기후가 온난한 아리조나주는 2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는 3월 상순, 워싱턴주는 5월 중순에 첫 번째 컷팅이 시작된다. 오레곤주 일부 주산지는 표고가 높은 위치(5,000~6,000피트=약 1,524~1,829m)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컷팅이 6월상~중순으로 북부 워싱턴주보다도 늦다.

이 첫 번째 컷팅의 개시시기가 각 산지에서의 연간 수확횟수에 영향을 준다. 캘리포니아주 중앙부는 연간 6~7회 수확(컷팅)이 주류지만, 같은 주 남부나 아리조나주는 9~10회의 수확을 하는 지역도 있다. 한편, 워싱턴, 오레곤주 등 비교적 냉량한 지역에서는 3~4회 수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수확 1회당 수량은 수확 횟수가 적은 지역이 많고, 품질도 높은 경향이 있다.

금년의 경우 서부지역은 첫 번째 컷팅의 수량이 초봄의 저기온 영향에 따라 평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각 산지 모두 첫 번째 컷팅 시기가 평년보다 2~3주간 늦어졌기 때문에, 각지의 연간 수확횟수가 1회 정도 적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단수나 생산량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부지역 알팔파 생산의 과제

작부지 갱탈전에 의한 수확 면적 감소

알팔파 등 두과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수중에 묶어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질소비료가 필요없다. 또한 알팔파는 뿌리를 깊게 뻗기 때문에 특히 점토질 토양에서는 친근성(淺根性) 작물과 윤작하여 토양에 물이 스며 침투성(浸透性) 유지에도 연결된다.

서부지역에서 알팔파는 옥수수, 밀, 보리 등과 윤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양상추나 토마토와 윤작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다호, 워싱턴주는 감자와, 네바다주는 양파와의 윤작이 주류를 이룬다. 밀의 주산지이기도 한 워싱턴주 콜롬비아 베이슨의 예를 보면, 알팔파(4~6년)→밀/감자(2년)→알팔파로 윤작하고 있어 알팔파의 파종간격은 대개 5년이다.

그런데, 최근 서부지역의 윤작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온난한 기후와 비옥인 토양을 가진 캘리포니아주는 생산자가 경제성,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가을에는 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겨울 밀 재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주 남부를 중심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수요가 높은 듀럼 밀의 재배가 증대하였다. 워싱턴주에서는 최근 옥수수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베이슨 등에서는 티모시의 첫 번째 컷팅 후에 2번을 기다리지 않고, 포장(圃場)을 다시 경작한 후에 옥수수를 심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물 공급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

알팔파는 연간 수확횟수가 많아 생육을 위한 물 요구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건

알팔파는 연간 수확횟수가 많아 생육을 위한 물 요구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건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부지역에서 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부지역에서 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 공급의 확보는 각 산지가 이용하는 수원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경우 북중부 콜롬비아 베이슨에서는 캐나다인 록키산맥에서 흘러 나오는 하천을 이용한 인공호수가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이 확보되지만, 같은 주 서부의 키티타스 밸리(티모시 주산지)에서는 케스케이드 산맥의 설해수(雪解水)나 근교의 인공호수를 관개에 이용하고 있어 여름철 하천, 호수, 눈이 마르면 취수제한을 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규모 농업지대면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가 많아 인구증가에 따른 수도수원·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10~15년간을 보면 록키산맥 적설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동 지역의 알팔파 생산에 있어 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주의 낙농 확대 대응

캘리포니아주의 낙농가에게는 네바다주 등 인근 주에서 생산된 알팔파가 많이 유통된다. 가격은 평균적으로 가장 품질이 높다고 보는 첫 번째 컷팅한 알팔파의 가격이 높지만, 2007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알팔파 제품의 부족으로 네바다주 등 몇몇 주에서 첫 번째 컷팅한 알팔파 가격과 2~3번 컷팅한 것의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최대 알팔파 주산지인 동시에 미국 전체 젓소 사육두수의 약 20%를 사육하는 주이기도 하다. 이 주의 젓소 사육두수는 90년대 초 이후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0~2008년 초 사이에도 20% 이상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알팔파 생산량은 1990~2002년에 걸쳐 매년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3년에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07년에는 작부 면적이 전년보다 10% 정도 줄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정도 감소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알팔파 생산량 감소 추세는 최근 목건초 수급 불균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최대 알팔파 주산지인 동시에 미국 젓소 사육두수의 약 20%를 사육하는 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알팔파 생산량 감소 추세는 목건초 수급 불균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4. 목건초 수요 동향

목건초의 미국 국내소비 동향

미국에서는 목건초의 거의 대부분이 소, 양, 염소 등 반추기축이나 말 전용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알팔파는 주로 젓소 전용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양질의 알팔파는 말 전용 사료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말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추

세여서 목건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비교적 적다.

목건초를 수송이나 보관하기 위한 형태는 절단하지 않고 압축하여 묶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건초는 단위 체적당 중량이 적고(곡물의 약 1/10), 수송시 부피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송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목건초는 일반적으로 생산지역 내에서 유통·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육우 생산자는 목건초 자급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낙농경영의 규모 확대가 진전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의 낙농가는 구입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내에서 목건초 소비량에 관한 상세한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매년도 목건초 총공급량(기초 재고량+생산량)에서 기말 재고량을 뺀 수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소비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목건초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며, 2000년 초에 비하면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량 감소 요인으로는 소 사육두수 감소와(2008년 1월 1일 현재 소 사육두수는 2000년 동기 대비 약 2% 감소) 최근 목건초 가격 상승에 따라 목초, 대두밀 펠렛, 면실박 등 각 지역마다 구하기 쉬운 가축사료 원료의 활용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내 목건초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며, 2000년 초에 비하면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건초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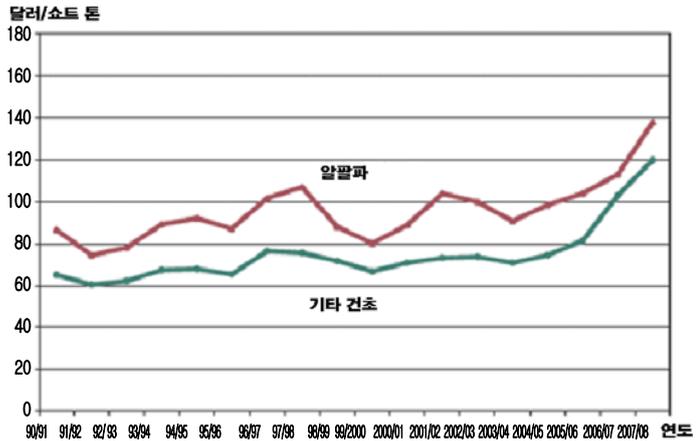
목건초 가격 추이

목건초의 미국 평균가격(생산자 수취가격)은 2004년도(2004년 5월~2005년 4월) 이후 국내 수요가 높아 매월 전년 동월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2006년 후반 이후 목건초 수급 불균형에 의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알팔파는 2006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5% 이상 적어 11월 이후 매월 전년 동월대비 1~20% 이상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6년도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약 9% 상승하였다. 2007년 생산량도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2007년도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0% 이상 높은 쇼트 톤당 138달러(톤당 162,800원 : 1쇼트 톤=0.907톤)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

기타 건초는 2005~06년에 걸쳐 생산량이 2년 연속 크게 감소하여 2005년도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9% 상승, 2006년

그림 8 알팔파와 기타 건초 가격 추이



자료: USDA/NASS 「Agricultural Prices」

도에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다. 2007년에는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7% 상승한 쇼트 톤당 120달러(톤당 141,560원)까지 올랐다.

2008년 5월 이후 알팔파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기타 건초의 가격은 17%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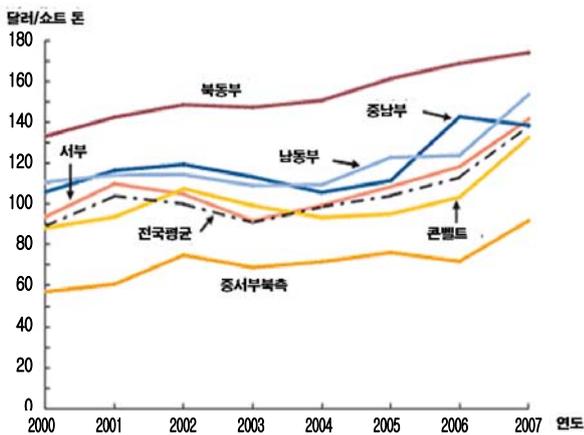
지역별 목건초 가격 추이

목건초 가격은 각 생산지역에서 수확면적, 생산량 증감 등 공급측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 최근 알팔파 가격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나 콘벨트지대의 가격은 미국 평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동부에서는 미국 평균에 비해 30~60% 정도 높고, 중서부 북부에서는 30~40% 정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7년도 알팔파 평균가격은 중남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상승했지만 특히 콘벨트 지대와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재고량이 낮은 수준이어서 전년대비 30% 상승하였다. 주별로는 펜실베이니아주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2% 상승한 쇼트 톤당 196달러(톤당 231,220원), 캘리포니아주는 약 50% 높은 가격인 173달러(톤당 204,090원) 등 미국 굴지의 낙농주에서 알팔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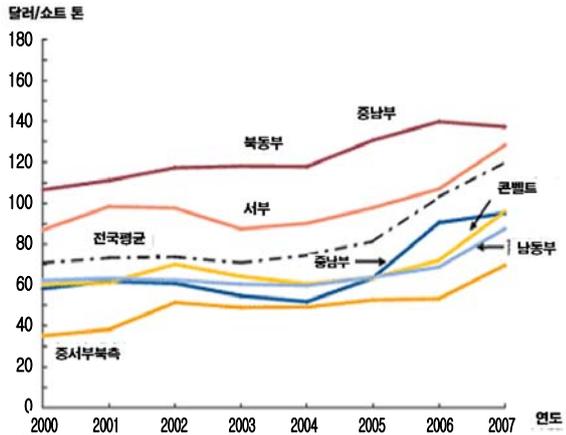
기타 건초의 지역별 평균가격은 북동부와 서부의 가격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2005~2006년에 걸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주산지인 중남부에서는 2006년 한발의 영향으로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40% 이상 높았지만, 2007년에는 생산량이 증대하여 가격 상승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였다.

그림 9 알팔파의 지역별 평균 가격 추이



자료 : USDA/NASS 「Agricultural Prices」

그림 10 기타 건초의 지역별 평균 가격 추이



자료 : USDA/NASS 「Agricultural Prices」

목건초 재고 수준

2000년 이후 알팔파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기타 목건초 생산량은 2005년에 중남부 4개 주 모두 수확면적이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텍사스, 오클라호마주를 덮친 한발의 영향으로 2년 연속 전년보다 낮았다. 그 결과 2007년 5월 1일의 목건초 전체 재고량(농가재고)은 전년대비 30% 많은 1,501만 톤으로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07년 알팔파 생산량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기타 목건초 생산량은 중남부의 기후 회복에 따라 2008년 5월 1일 재고량이 전년대비 40%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수준은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7% 정도 낮은 수준이다.

2008년 5월 1일 재고량을 지역별로 보면, 중남부지역은 90년 이후 최고 수준인 반면, 콘벨트 지대, 남동부, 북동부지역은 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서부 지역에서도 2007년 목건초 생산량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여전히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20% 정도 낮다. 이와 같이 현재 중남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목건초 재고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11 목건초의 지역별 재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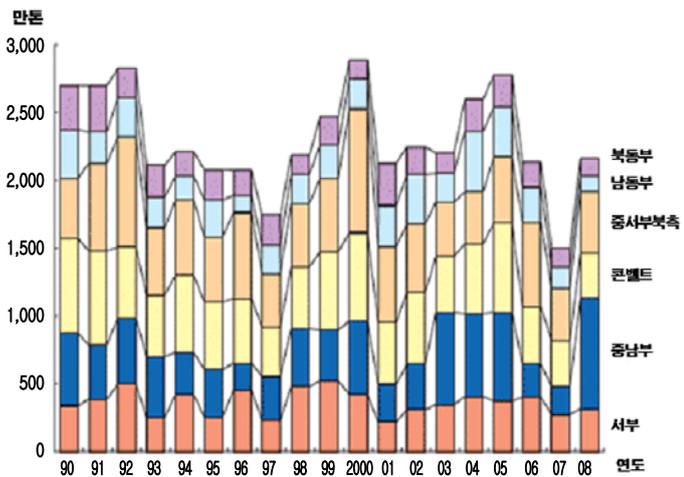


표 1 목건초 수급 추이

단위: 천에이커, 천톤, 톤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기수 재고	22,096	20,775	20,739	17,424	21,827	24,662	28,848
수확면적	58,815	59,764	61,169	61,084	60,006	63,181	60,355
알팔파	24,138	24,404	24,206	23,551	23,592	24,066	23,463
기타 건초	34,677	35,360	36,963	37,533	36,414	39,115	36,892
단수	2.55	2.58	2.45	2.50	2.52	2.53	2.54
알팔파	3.36	3.45	3.27	3.33	3.48	3.51	3.47
기타 건초	1.99	1.98	1.91	1.97	1.91	1.92	1.95
생산량	150,136	154,239	149,779	152,536	151,387	159,582	153,603
알팔파	81,130	84,138	79,139	78,535	81,992	84,405	81,520
기타 건초	69,006	70,101	70,640	74,001	69,395	75,177	72,083
총공급량	172,232	175,014	170,518	169,960	173,214	184,244	182,451
소비량	151,457	154,275	153,094	148,133	148,552	155,395	161,203
수출량	1,532	1,694	1,753	1,765	1,881	2,059	2,325
알팔파	632	708	828	804	851	889	864
기타 건초	900	995	925	961	1,000	1,169	1,480
기말재고	20,775	20,739	17,424	21,827	24,662	28,848	21,248
재고율(시산)	13.70%	13.40%	11.10%	14.70%	16.60%	18.60%	13.20%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수 재고	21,248	22,458	22,013	25,947	27,758	21,345	15,013
수확면적	63,516	63,942	63,383	61,966	61,729	60,927	61,625
알팔파	23,952	22,923	23,529	21,707	22,439	21,434	21,670
기타 건조	39,564	41,019	39,854	40,259	39,290	39,493	39,955
단수	2.46	2.34	2.49	2.55	2.45	2.34	2.44
알팔파	3.35	3.19	3.24	3.48	3.39	3.36	3.35
기타 건조	1.92	1.85	2.04	2.05	1.91	1.78	1.95
생산량	156,416	140,467	157,585	159,247	151,017	142,336	150,304
알팔파	80,354	73,014	76,273	75,481	76,149	72,006	72,575
기타 건조	76,062	76,453	81,312	82,766	74,868	70,330	77,729
총공급량	177,664	171,925	179,598	184,194	178,775	163,681	165,317
소비량	155,206	149,912	153,651	156,436	157,430	148,668	143,724
수출량	2,117	2,703	2,856	2,577	2,659	2,409	2,415
알팔파	743	1,067	1,143	1,137	1,020	951	900
기타 건조	1,374	1,638	1,713	1,440	1,638	1,459	1,485
기말재고	22,458	22,013	25,947	27,758	21,345	15,013	21,593
재고율(자산)	14.50%	14.70%	16.90%	17.70%	13.60%	10.10%	15.00%

주: 기초 재고는 매년 5월 1일 현재
 자료: USDA/NASS 「Data and Statistics」, USDA/FAS 「U.S. Trade Internet System」

목건초 수출 동향

물류 체계

수출 전용 목건초의 대부분은 서부에서 생산되어 목건초 가공·수출업자에 의해 수출 전용 사이즈로 압축·곤포된 후,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각 주의 항구에 옮겨져 수출되는 국가 전용으로 선적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목건초의 물류는 미시시피 하구에 위치하는 뉴올리언즈항을 수출의 거점으로 하는 곡물수출과는 체계가 다르다. 수출 전용 목건초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유타, 네바다 등 서부에서 생산되어 목건초 가공·수출업자에 의해 수출 전용 사이즈로 압축·곤포된 후, 캘리포니아(어클랜드항, 롱비치항), 워싱턴(시애틀항, 타코마항), 오레곤(포트랜드항) 각 주의 항구에 옮겨져 수출되는 국가 전용으로 선적된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목건초의 형태는 빅 베일이라 불리는 종횡 4×4피트 또는 3×4피트(약 1.2×1.2m 또는 약 0.9×1.2m, 500~800kg 정도)의 큰 각형(또는 원주형)으로 압축·곤포된 것이 주류이다. 수출전용의 형태는 초종에 따라 다르지만, 알팔파 등은 수송효율을 높이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수출전용으로 생산된 스펀 베일(종횡 1×3피트, 약 0.3×0.9m, 60kg 정도)이며, 가공·수출업자에 의해 한층 더 적게 반 정도의 사이즈(30kg 정도)로 재압축·가공되는 경우가 많다.

수출량

목건초 수출 동향을 보면, 1999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목건초가 수출되고 있지만, 생산량에 대한 수출전용 비율은 매년 2% 정도로 적다. 수출량 가운데 알팔파(알팔파 큐브, 알팔파 밀을 포함)가 매년 약 40%를 차지하며, 기타 건초에서는 수단글라스, 티모시 등이 주력이다.

2007년 수출량은 알팔파 건초가 전년대비 8% 감소한 74만 6천 톤, 알팔파 큐브가 42% 증가한 17만 톤, 알팔파 베일이 38% 감소한 1만 3천 톤, 기타 건초가 2% 증가한 148만 5천 톤으로, 전체적으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241만 5천 톤이었다. 목건초 수출량은 90년대 중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재고 수준 저하에 따른 가격 상승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컨테이너 선의 해상 운임 급등으로 침체 경향에 있다.

2007년 수출량을 발송지별로 보면, 알팔파 건초의 경우 최대 수출지인 일본전용이 전년대비 12% 감소한 49만 톤, 한국이 5% 증가한 13만 4천 톤, 대만이 3% 증가한 5만 4천 톤, 캐나다가 23% 감소한 3만 톤이었다. 한편, 기타 건초의 경우 일본전용이 전년대비 4% 감소한 100만 톤, 한국이 21% 증가한 39만 9천 톤, 대만이 6% 증가한 6만 3천 톤, 아랍에미리트가 38% 감소한 1만 3천 톤이었다.

이와 같이 알팔파 건초와 기타 건초 모두 일본전용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계속 감소하여 2007년 점유율은 각각 65%까지 낮아졌다. 2007년에는 아랍에미리트나 중국용 알팔파 건초수출량이 각각 전년대비 1.5배(2만 8천 톤), 5.5배(2천 톤) 급증하고 있어 미국 수출 관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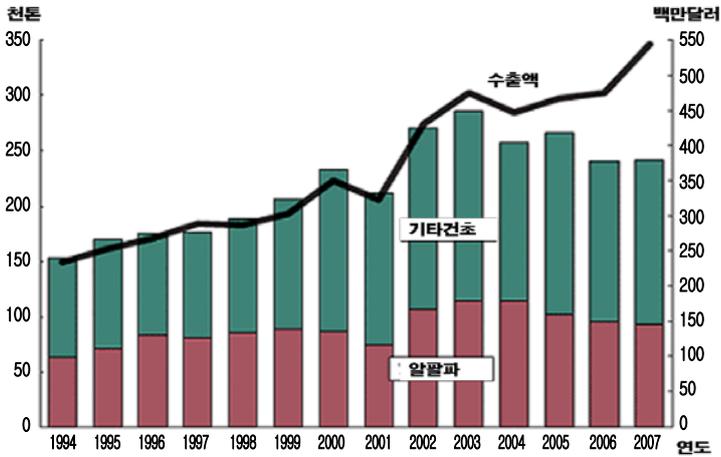
목건초 수출액은 90년대 중순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수출액은 알팔파 건초가 전년대비 4% 증가한 1억 7,100만 달러(1,829억 7,000만원), 알팔파큐브가 33% 증가한 2,800만 달러(299억 6,000만원), 알팔파밀이 33% 감소한 200만 달러(21억 4,000만원), 기타 건초가 20% 증가한 3억 4,200만 달러(3,659억 4,000만원)로, 총 15% 증가한 5억 4,400만 달러(5,828억원)였다.

수출량이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전년을 크게 상회한 이유는 평균 수출단가(FOB 가격)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알팔파 건초의 경우 12% 상승한 톤 당 229.1달러(245,130원), 기타 건초는 18% 상승한 톤당 230.6 달러(246,740원)로 나타났다.

주요국에 수출하는 단가는 2007년에 크게 상승하였다. 수출 단가의 변동을 국가별로 보면, 알팔파 건초의 경우 일본 수출 단가가 10% 상승한 톤당 237달러(253,590원)이며 한국 수출용은 19% 상승한 톤당 236 달러(252,520원)로 일본 수출단가에 육박하였다. 기타 건초의 경우 알팔파 건초의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아랍에미리

목건초 수출 동향을 보면, 1999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목건초가 수출되고 있지만, 생산량에 대한 수출전용 비율은 매년 2% 정도로 적다.

그림 12 건초의 수출량과 수출액의 추이



자료 : USDA/FAS 「 U.S. Trade Internet System」

트의 수출단가가 50% 상승하여 208 달러(222,560원)로 나타났다.

기타 건초의 주요 발송지를 보더라도 일본 수출용이 18% 상승(톤당 229달러, 245,030원), 한국 수출용이 18% 상승(톤당 236.4달러, 252,950원), 대만 수출용이 11% 상승(톤당 204달러, 218,280원)하였고 아랍에미리트는 전년대비 56% 상승한 289.6 달러(309,870원)의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목건초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도 각 주요 발송지 국가에서 목건초 거래 문의가 활발하다.

5. 맺음말

현재 미국의 낙농산업은 2007년 초 이후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낙농경영으로 인해 목건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곡물과 유량종자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생산자들의 작물 경작지 재탈전이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초 이후 일정하게 유지 추세를 보이는 목건초 수확면적도 기타 건초는 증가하는 반면 알팔파는 감소하고 있다.

기타 건초 수확면적은 옥수수나 대두로 전작이 최근 급속히 증대하는 중서부 북부를 제외하고, 중남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육용우 번식경영에 의지하며 증가하고 있다. 기타 건초의 상당수는 중남부를 비롯하여 관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목건초 재배지는 한발 등 기후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적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작물과 경합이 적고, 비교적 안정된 공급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알팔파는 90년대 초까지 주산지였던 중서부 북부와 콘벨트 지대에서 젓소 사육 두수의 감소 경향이 장기화되어 재배지의 대부분을 옥수수나 대두에게 빼앗겼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의 알팔파 수확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젓소 사육두수 감소 요인에 의한 알팔파 생산 감소 추세는 미국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작게 나타나지만, 북동부나 남동부지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에서는 90년대 초 이후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뉴멕시코주에서 낙농 경영의 규모 확대에 따라 알팔파 수확면적이 증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물 공급 문제

나 다른 작물과의 경합 등에 의해 발생한 알팔파 수확면적 감소는 목건초 수급을 불균형하게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의 목건초 주산지에서는 밀이나 옥수수같은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전작이 점차 진전되고 있다.

미국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젓소 사육두수는 90년 초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낙농산업은 2007년 초 이후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낙농경영으로 인해 목건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낙농경영 규모 확대에 의해 증대해 온 서부지역의 알팔파같은 목건초 생산 및 가격 동향은 향후 그 지역의 낙농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낙농경영 규모 확대에 의해 증대해 온 서부지역의 알팔파같은 목건초 생산 및 가격 동향은 향후 그 지역의 낙농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畜産の情報 8월호



국제기구 동향

DDA, 2008년 9월 농업협상

DDA, 2008년 9월 농업협상*

신 유 선

라미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지난 7월 농업 및 비농산물 세부원칙(Modalities)¹⁾ 타결을 위해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²⁾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³⁾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⁴⁾가 일부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된 가운데, 라미(Lamy)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9월에는 선진

* 본 내용은 국내의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2) 1948년 이후 GATT가 추구해온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한 경제분야의 UN과 같은 기구이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과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방식을 채용하여 특정 안건 표결시 회의 참가국의 명백한 반대 없으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투표국의 표결로 결정한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특별이사회, 상설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의 참석은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 3)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무역 협상을 말한다. 이전의 '라운드'라는 명칭대신에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 현재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4)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7개국(G7)⁵⁾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1. DDA 농업협상 동향

소규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결렬 이후, 라미(Lamy)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브라질과 호주는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반면 EU와 일본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협상 재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라미 총장 방문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선진 7개국(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⁶⁾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수입쿼터(Tariff Rate Quota, TRQ)⁷⁾ 신설과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⁸⁾ 등 기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EU와 일본이 TRQ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호주, 브라질, 인도가 반대하였고, 관세단순화와 관련하여서는 EU가 80% 수준의 증가세 전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의장주재 다자협상 재개를 위해 팔코너(Falconer) 의장은 주요협상그룹과 면담을 추진중이며, 9월 25일 25개국과의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향후 프로세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 교환예정에 있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공식 주요협의 등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2.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의 주요 사항

소규모 각료회의가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⁹⁾의 감축,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¹⁰⁾과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¹¹⁾의

- 5)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 8이라고 하며, 신흥 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 22이라고 한다.
- 6)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7)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만약, 한해 동안 콩의 수입이 70톤만 되었을 경우 수입쿼터 소진율(fill rate)은 70%가 되고 30톤이 미소진(underfill)되었다고 말한다.
- 8) 관세단순화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증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번 중에서 76개 세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증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증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이다.
- 9) UR 협상에서 크게 감축위무가 없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과 가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감축대

수와 대우, 비농산물 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¹²에서의 관세감축 공식계수와 개도국 신축성 수준 등에 있어서 선진 7개국(G7)간 잠정합의를 도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핵심 원인으로 SSM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SSM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각료회의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다.

각료회의때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입장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정리된다.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정리된다. 이에 대한 의장수정안(7.10)과 선진 7개국(G7)의 잠정타협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장수정안(7.10)의 발동조건은 사실상 발동기준물량의 110% 초과부터 가능하며, HS 6단위 기준으로 2~6개 세번(Tariff Line, TL)¹³에 한해 UR 양허관세 초과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관세수준은 UR 양허관세의 115% 또는 UR 양허관세 +15% 중 큰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1 SSM에 대한 의장수정안

구분		의장수정안(7.10)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Trigger)	없음.(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Remedy)	Max(UR 양허관세의 115%, UR 양허관세+15%)
	대상범위	HS 6단위 기준으로 2~6개 세번

상보조(AMS), 최소허영보조(De-minimis), 블루박스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 10)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11)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 12)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 13)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 단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선진 7개국(G7)이 제안하는 발동조건은 발동기준물량의 140% 초과부터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의 2.5%를 범위로 하였다. 초과관세수준은 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UR 양허관세+15% 중 큰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SSM에 대한 선진 7개국(G7)의 제안

구분		미국(G7)의 제안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Trigger)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Remedy)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15%, UR 양허관세+15%)
	대상범위	농산물 전체 세번의 2.5%

인도 등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¹⁴⁾은 의장수정안과 동일하게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농산물 세번의 7%를 범위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등의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가 UR 양허관세 초과를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므로 이보다 낮을 경우 SSM 발동이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표 3 SSM에 대한 인도의 제안

구분		인도(G33)의 제안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Trigger)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Remedy)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30%, UR 양허관세+30%)
	대상범위	농산물 전체 세번의 7%

인도 등(G33)은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등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하여 EU는 두 가지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안은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5~120%]를 넘을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33% 또는 절대적으로 8%p 중 큰 수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 물량의 [135~140%]를 넘을 경우 초과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큰 수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의장수정안(7.10)과 같이 전체 세번의 2.5%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중재안은 실제 해당 세번의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가격이 [7.5~15%] 하락할 경우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15~120%]만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큰 수치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14)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히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이러한 EU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도는 대상 범위가 2.5%로 너무 적으므로 농산물 전체 세번의 7% 혹은 적어도 5%는 되어야 하며, UR 양허관세 초과 관세수준도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인도는 이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는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SSM에 대한 논의 내용

최근 이루어진 논의에서 SSM이 정상교역을 왜곡시켜서 안된다는 취지하에 주요국들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와 중국은 발동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9월 10일과 9월 17~20일에 개최된 선진 7개국(G7) 고위급회의에서 잔여쟁점 사항으로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SSM이 정상교역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하에, 발동조건, 대상범위, 구제조치와 발동기간 등의 핵심요소에 대하여 주요국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EU는 소규모 각료회의때 제기한 두 가지 방식의 중재안을 일부 조정하여 다시 제안하였다. 하나는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며, UR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수준은 해당연도 양허세율의 33% 또는 8%p 중 높은 수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넘을 경우 해당연도 양허세율의 50% 또는 12% 중 큰 수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범위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세번의 2.5% 이내이며, 연속발동을 금지하는 부수조건을 달았다.

표 4 SSM에 대한 EU의 새로운 중재안

구분	EU의 새로운 중재안	
UR 양허관세 초과 조건	발동기준 (Trigger)	1)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2) 해당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초과할 경우
	구제조치 (Remedy)	1)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33%, UR 양허관세+8%) 2) Max(UR 양허관세+해당연도 양허관세의 50%, UR 양허관세+12%)
	대상범위	농산물 전체 세번의 2.5%

물량기준 SSM발동기준을 110%와 140%로 가정했을 경우, 2007년 기준 우리나라 SSM 발동횟수는 110%인 경우 466회이고, 140%일 경우 296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EU의 새로운 중재안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여전히 발동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SM 발동 가능성

물량기준 SSM 발동기준을 인도와 미국이 각각 제안한 110%와 140%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세번에 대한 발동 횟수는 <표 5>와 같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SSM 발동횟수는 110%인 경우에는 466회이고, 140%일 때에는 296회로 나타났다.

표 5 전체 세번에 대한 SSM 발동 횟수

발동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140% 이상(미국)	351	346	297	287	296
110% 이상(인도)	508	517	458	442	466
발동 없음	961	952	1,011	1,027	1,003

주: 1) 11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함.
 2) 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음.

쇠고기의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110% 이상일 때는 13번, 140% 이상일 때에는 8번 발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돼지고기는 110% 이상일 때는 11번, 140% 이상일 때에는 8번 발동하며, 낙농품의 경우도 각각 13번과 5번으로 나타났다.

표 6 쇠고기의 SSM 발동

단위: %

HSK 코드	세부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66	10	5	1	1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	441	81	96	147	14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225	88	126	163	176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255	17	2	6	52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	131	40	57	79	8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125	76	70	101	130
0206100000	소식용설육(신선/냉장)	304	36	75	205	207
0206210000	소식용설육(혀/냉동)	107	5	5	43	269
0206220000	소식용설육(간장/냉동)	0	0	0	0	0
0206291000	소식용설육(꼬리/냉동)	135	92	89	93	113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50	12	21	77	204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06	45	58	104	124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0	0	0	0	36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0	0	0	0	0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2,700	180	225	0	0
0210991090	육 또는 식용설육(기타/분.조분)	75	180	75	75	23
0504001010	장(소의 것)	109	5	37	132	173
0506901020	뼈(소의 것)	0	0	0	0	0
0511993010	수정란(소의 것)	0	0	0	0	0
1602100000	육.설육(균질화조제품)	150	0	500	0	0
1602501000	소의 것(밀폐용기의 것)	425	129	240	24	67
1602509000	소의 것(기타조제저장)	135	31	28	88	610
1602901000	조제육설육(밀폐용기의 것)	52	245	835	419	248
1602909000	조제육.설육기타	115	93	77	103	104
2104101000	수프.브로드.제조품(육류의 것)	107	158	391	246	119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121	5	21	25	139

주: 표안의 수치들은 과거 3년 수입량 평균을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해당년도의 수입증감율을 나타냄.
 가령 물량발동기준이 110%인 경우 수치가 110 이상인 품목은 모두 발동하고 그 이하인 품목은 발동하지 않음.

표 7 돼지고기의 SSM 발동

단위: %

HSK 코드	세부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0210120000	돼지고기 식용설육(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16	171	210	155	148
1602411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의 것)	126	110	123	92	79
1602421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의 것)	0	0	0	0	0
1602491000	돼지고기 기타부위(밀폐용기의 것)	125	129	104	100	104
16024190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기타조제저장)	113	171	166	212	113
160242900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기타조제저장)	95	64	26	0	0
1602499000	돼지고기기타(기타조제저장)	151	212	173	301	283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0	17,614	163	80	23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28	349	209	470	91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삼겹살)	98	142	147	139	139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06	156	205	174	131
0210110000	돼지고기 식용설육(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있는 것)	0	0	0	0	0
0210190000	돼지고기 식용설육(기타)	141	127	15	450	16
0203110000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0	0	0	0	0
0203120000	돼지고기(냉장/넓적다리,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있는 것)	0	0	14,100	0	6
0203191000	돼지고기(냉장/삼겹살)	123	441	469	313	212
0203199000	돼지고기(냉장/기타)	8	2,365	728	410	328
0210991020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 조분)	0	0	0	0	0
0206300000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0	933	0	429	1,306
0206410000	돼지식용설육(간장/냉동)	0	0	0	1,064	147
0206491000	돼지식용설육(족/냉동)	108	163	176	180	57
0206499000	돼지식용설육(기타/냉동)	43	182	559	282	200
0209001000	돼지비계	0	7	1,480	293	155

주: 표안의 수치들은 과거 3년 수입량 평균을 100%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해당년도의 수입증감율을 나타냄.

3. 양우 전망 및 계획

다자협상이 재개되면 소규모 각료회의 잠정타협안과 그 이후의 논의사항인 다자화, 잔여쟁점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선진 7개국(G7) 논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참석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과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미 사무총장은 금년내로 세부원칙(Modalties) 타결과 내년 상반기 이행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협상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수입국 그룹(G10)¹⁵⁾ 및 개도국 특별품목그룹(G33) 등과의 공조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G10, G33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SSM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러 제안을 상세히 평가하고 G33 공조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품목(SP) 관세감축면제 범위의 확보와 일률적인 관세상한(Tariff Capping)¹⁶⁾ 도입 저지 등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최종 협상타결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영향분석 작업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¹⁷⁾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미 총장은 금년내로 세부원칙 타결과 내년 상반기 이행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농림수산물식품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수산물식품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3, 10 July 2008

15)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16)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17)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9)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9)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9)

2008~09년 세계 및 호주 곡물 전망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 9)*

성명환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 곡물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2006년 후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08년 9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91.3%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9.9% 상승한 톤당 697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08년 9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91.3% 상승한 톤당 1,10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9.9% 상승한 톤당 697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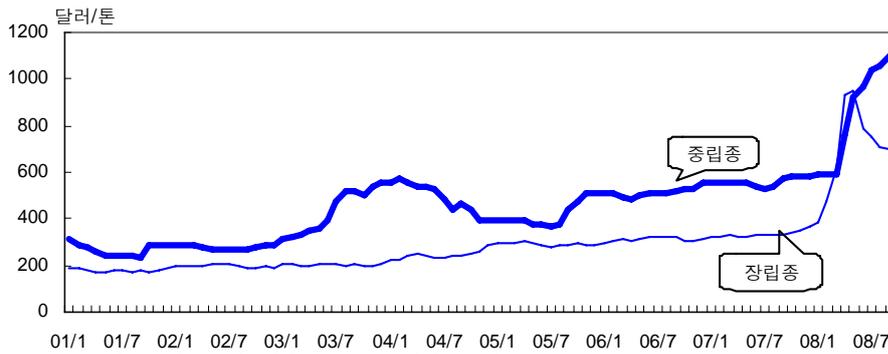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중립종 쌀가격은 2008년 4월 758달러, 5월 926달러, 8월에는 1,061달러까지 상승하였다. 9월 가격도 현재 전년 동월대비 91.3% 상승한 톤당 1,10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 321달러였으나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에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9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9.9% 상승, 전월대비 1.7% 하락한 톤당 697달러수준이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쌀 수요 증가와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자국 쌀 수요가 늘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의 국제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쌀 수요증가와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6/07	2007/08	2007.9	2008.8	2008.9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 국	CA 중립종 ¹⁾	538	694	576	1,061	1,102	91.3	3.9
	남부 장립종 ¹⁾	407	621	413	802	788	90.8	△1.7
태 국 ²⁾		320	551	332	709	697	109.9	△1.7
베 트 남 ³⁾		292	629	320	588	600	87.5	2.0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 Rice Outlook, September 15, 2008.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4년 4월 톤당 20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9월 15일 현재 톤당 33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31.0%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4.8% 낮은 수준이다.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10월에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9월 15일 현재 전년 동월대비 21.2% 상승, 전월대비 9.2% 하락한 톤당 55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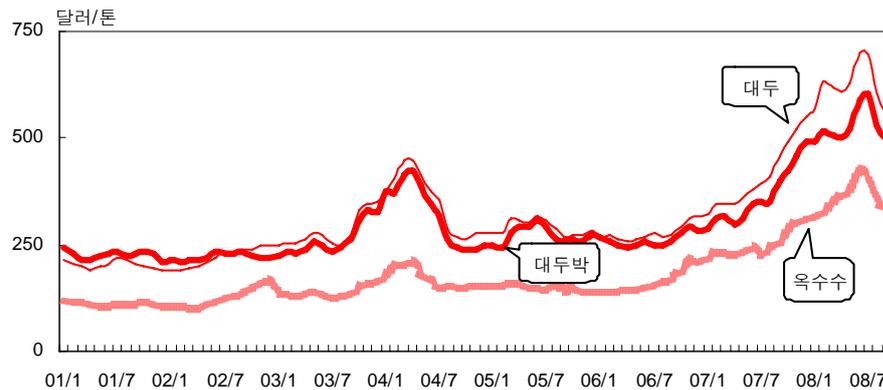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9월 15일 현재 톤당 49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4.1% 상승, 전월대비 6.4% 하락한 것이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8년 9월에는 94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 9월 15일 현재 각 곡물의 운임포함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338달러, 대두가 톤당 554달러, 대두박이 톤당 495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과 함께 해상운임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9월 15일 기준 가격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6	2007	2007.9	2008.8	2008.9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수수	164	252	258	355	338	31.0	△4.8
대두	278	410	457	610	554	21.2	△9.2
대두박	261	362	399	529	495	24.1	△6.4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9월 15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8년 9월 15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9.4% 하락한 톤당 281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6.7% 상승한 톤당 221달러, 2008년 1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3.7% 상승한 톤당 433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6년 10월에 193달러에 이르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였다. 이후 하락하여 9월 15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8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4%, 전월대비 10.2%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8년 9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281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221달러, 1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433달러이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하여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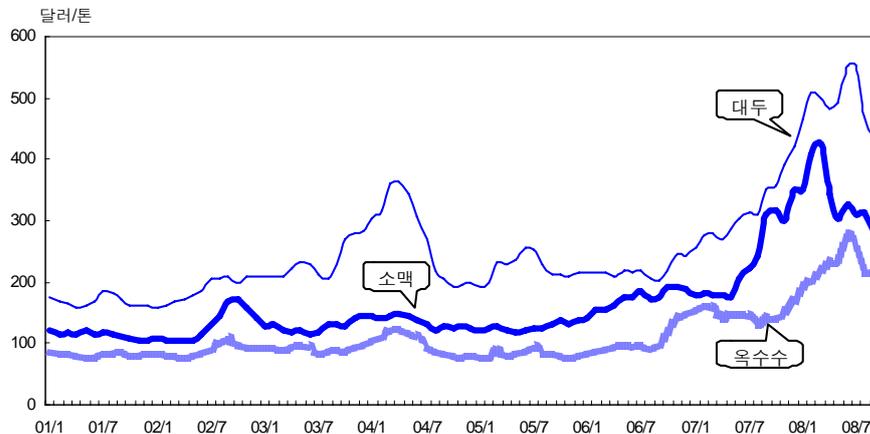
2008년 9월 15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2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6.7%, 전월대비 2.3% 상승하였다. 2008/09년도 옥수수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08/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9월 15일 현재 2008년 1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433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7%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7.9% 하락한 수준이다. 그리고 대두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6/07	2007/08	2007.9	2008.8	2008.9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1)	181	315	310	313	281	△9.4	△10.2
옥 수 수2)	140	203	141	216	221	56.7	2.3
대 두2)	267	462	350	470	433	23.7	△7.9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8년 9월 15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연도 ¹⁾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²⁾		태국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1	315	203	462

주: 1) 곡물연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 <http://www.ams.usda.gov/mnreports/lst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 9)*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1억 9,496만 톤, 소비량은 3.0% 증가한 21억 7,411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6.0% 늘어난 3억 6,727만 톤, 기말재고율은 16.9%로 전망되었다.

1. 전세계 곡물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1억 9,496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21억 7,411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1억 9,4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642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4,138만 톤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8,435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7,411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1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억 6,4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0% 증가한 3억 6,727만 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007/08년도보다 0.5% 포인트 높은 16.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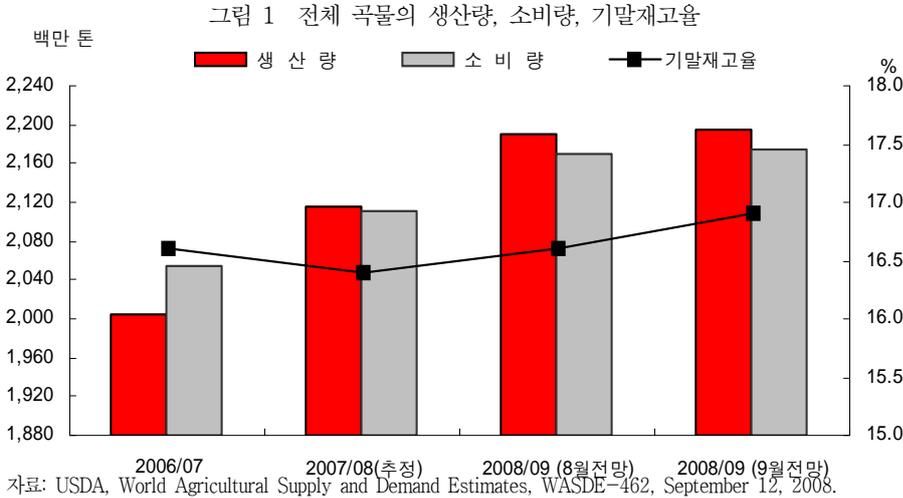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00	2,116.70	2,190.61	2,194.96	3.7	0.2
공 급 량	2,393.61	2,457.03	2,531.21	2,541.38	3.4	0.4
소 비 량	2,053.28	2,110.61	2,170.58	2,174.11	3.0	0.2
교 역 량	260.10	268.64	265.03	264.10	△1.7	△0.4
기말재고량	340.33	346.42	360.63	367.27	6.0	1.8
기말재고율(%)	16.6	16.4	16.6	16.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2. 쌀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도보다 0.6% 증가한 4억 3,198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4.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4억 2,888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719만 톤보다 약 17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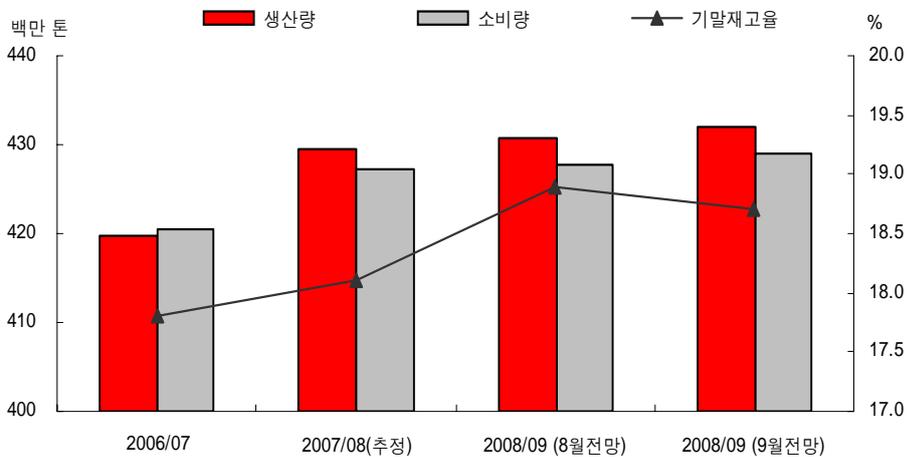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4억 3,198만 톤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2,888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8/09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2,825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이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6.9% 줄어든 2,82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9.5% 증가할 전망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쌀 수출량은 태국이 33.6%, 베트남이 18.4%, 미국이 12.5%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8,036만 톤으로 전망되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보다 약 0.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고량은 83만 톤으로 전년대비 11.7%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도 20.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0%, 4.7%, 5.6%, 10.0%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419.85	429.47	430.75	431.98	0.6	0.3
공급량	495.53	504.45	508.35	509.24	0.9	0.2
소비량	420.55	427.19	427.67	428.88	0.4	0.3
교역량	31.30	30.34	27.75	28.25	△6.9	1.8
기말재고량	74.98	77.26	80.68	80.36	4.0	△0.4
기말재고율(%)	17.8	18.1	18.9	18.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0.7% 증가한 6억 7,6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5.7% 증가한 6억 5,48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21.4%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억 2,288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0.9% 줄어든 2,722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2.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는 전년보다 100만 톤 늘어난 1,750만 톤, EU는 전년보다 50.0% 늘어난 1,80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3,989만 톤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87.7%, 16.4%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1%에서 21.4%로 2.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7,628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6억 5,488만 톤으로 예상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30	610.87	670.75	676.28	10.7	0.8
공 급 량	744.00	738.00	785.96	794.77	7.7	1.1
소 비 량	616.87	619.51	649.80	654.88	5.7	0.8
교 역 량	111.19	113.59	121.28	122.88	8.2	1.3
기말재고량	127.13	118.49	136.16	139.89	18.1	2.7
기말재고율(%)	20.6	19.1	21.0	2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9% 줄어든 7억 8,296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EU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7억 9,647만 톤으로 예상되며 미국, 멕시코,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2.4%, 3.1%, 6.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7억 8,296만 톤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7억 9,647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35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1%포인트 줄어 들어 13.8%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008/09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35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1.1% 감소한 8,607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0%, 15.1%로 전체 수출량의 74.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량은 미국이 전년대비 17.5%, 아르헨티나가 전년대비 13.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0% 감소한 1억 99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1,35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1% 포인트 줄어 들어 13.8%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23	790.24	789.58	782.96	△0.9	△0.8
공 급 량	836.85	898.78	912.04	906.42	0.9	△0.6
소 비 량	728.31	775.32	799.66	796.47	2.7	△0.4
교 역 량	93.90	96.83	88.82	86.07	△11.1	△3.1
기말재고량	108.54	123.46	112.38	109.94	△11.0	△2.2
기말재고율(%)	14.9	15.9	14.1	13.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5. 대두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799만 톤, 소비량은 2억 3,67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2.6%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799만 톤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각각 13.5%, 2.5%, 8.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3,008만 톤보다 668만 톤 늘어난 2억 3,67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4.0%, 5.9%,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7,76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5.1%, 브라질이 35.4%, 아르헨티나가 17.9%로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88.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3.4% 감소하는 반면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전년의 5,013만 톤보다 2.2% 증가한 5,123만 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낮은 21.6%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6.56	218.22	237.36	237.99	9.1	0.3
공 급 량	289.66	280.87	286.61	288.12	2.6	0.5
소 비 량	224.76	230.08	237.88	236.76	2.9	△0.5
교 역 량	71.45	78.97	75.67	77.60	△1.7	2.6
기말재고량	62.65	50.13	49.28	51.23	2.2	4.0
기말재고율(%)	27.9	21.8	20.7	21.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6. 대두박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265만 톤, 소비량은 1억 6,104만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1.8%,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6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5,76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4%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세계 수출량은 아르헨티나가 50.0%, 브라질이 22.2%, 미국이 13.5%로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4.4% 줄어든 626만 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3.81	159.75	163.23	162.65	1.8	△0.4
공 급 량	159.73	165.74	169.65	169.20	2.1	△0.3
소 비 량	152.37	158.07	161.86	161.04	1.9	△0.5
교 역 량	54.00	56.21	57.82	57.63	2.5	△0.3
기말재고량	5.99	6.55	6.25	6.26	△4.4	0.2
기말재고율(%)	3.9	4.1	3.9	3.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소비량은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5.4%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5.7%에 이를 전망이다.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5.53	504.45	508.35	509.24	0.9	0.2
기초재고량	75.68	74.98	77.60	77.26	3.0	△0.4
생산량	419.85	429.47	430.75	431.98	0.6	0.3
미국	6.24	6.31	6.55	6.62	4.9	1.1
태국	18.25	19.30	18.80	19.50	1.0	3.7
베트남	22.92	24.13	23.70	23.70	△1.8	0.0
인도네시아	35.30	35.50	36.25	36.25	2.1	0.0
중국	127.20	129.84	130.55	130.55	0.5	0.0
일본	7.79	7.93	7.90	8.00	0.9	1.3
수입량	27.67	25.41	25.60	26.31	3.5	2.8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국	0.47	0.30	0.33	0.33	10.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0.55	427.19	427.67	428.88	0.4	0.3
미국	4.07	3.95	4.02	4.02	1.8	0.0
태국	9.78	9.60	9.45	9.50	△1.0	0.5
베트남	18.78	19.01	19.10	19.24	1.2	0.7
인도네시아	35.90	36.35	36.85	36.85	1.4	0.0
중국	127.20	127.34	127.65	127.65	0.2	0.0
일본	8.25	8.15	8.13	8.23	1.0	1.2
수출량	31.30	30.34	27.75	28.25	△6.9	1.8
미국	2.92	3.45	3.52	3.52	2.0	0.0
태국	9.56	10.00	9.00	9.50	△5.0	5.6
베트남	4.52	4.75	5.20	5.20	9.5	0.0
기말재고량	74.98	77.26	80.68	80.36	4.0	△0.4
미국	1.27	0.94	0.72	0.83	△11.7	15.3
태국	2.51	2.22	1.88	2.73	23.0	45.2
베트남	1.39	2.16	1.66	1.72	△20.4	3.6
인도네시아	4.61	4.26	5.06	4.46	4.7	△11.9
중국	35.92	37.72	39.85	39.85	5.6	0.0
일본	2.41	2.69	2.96	2.96	1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4.00	738.00	785.96	794.77	7.7	1.1
기초재고량	147.70	127.13	115.21	118.49	△6.8	2.8
생산량	596.30	610.87	670.75	676.28	10.7	0.8
미국	49.32	56.25	67.02	67.02	19.1	0.0
호주	10.82	13.04	25.00	22.00	68.7	△12.0
캐나다	25.27	20.05	25.00	25.40	26.7	1.6
EU27	124.84	119.39	143.17	147.19	23.3	2.8
중국	108.47	109.86	114.00	114.00	3.8	0.0
러시아	44.90	49.40	57.00	60.00	21.5	5.3
수입량	113.02	111.27	118.56	120.00	7.8	1.2
EU27	5.14	7.00	5.00	5.00	△28.6	0.0
브라질	7.75	7.00	7.00	7.00	0.0	0.0
북아프리카	16.30	21.30	20.30	20.30	△4.7	0.0
파키스탄	0.06	1.70	2.00	2.00	17.6	0.0
인도	6.71	2.00	0.00	0.00	△100.0	0.0
러시아	0.86	0.44	0.50	0.40	△9.1	△20.0
소비량	616.87	619.51	649.80	654.88	5.7	0.8
미국	31.04	29.01	35.22	35.22	21.4	0.0
EU27	125.50	118.13	131.00	132.50	12.2	1.1
중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키스탄	21.90	22.40	22.90	22.60	0.9	△1.3
러시아	36.40	37.70	40.00	41.50	10.1	3.8
수출량	111.19	113.59	121.28	122.88	8.2	1.3
미국	24.73	34.40	27.22	27.22	△20.9	0.0
캐나다	19.64	16.50	17.00	17.50	6.1	2.9
EU27	13.87	12.00	15.50	18.00	50.0	16.1
기말재고량	127.13	118.49	136.16	139.89	18.1	2.7
미국	12.41	8.32	15.62	15.62	87.7	0.0
EU27	14.03	10.28	11.95	11.97	16.4	0.2
중국	38.46	41.53	46.75	46.56	12.1	△0.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36.85	898.78	912.04	906.42	0.9	△0.6
기초재고량	124.62	108.54	122.46	123.46	13.7	0.8
생산량	712.23	790.24	789.58	782.96	△0.9	△0.8
미국	267.60	332.09	312.13	306.65	△7.7	△1.8
아르헨티나	22.50	20.50	22.00	19.00	△7.3	△13.6
EU27	53.83	47.31	58.59	58.14	22.9	△0.8
멕시코	22.35	22.65	23.00	24.00	6.0	4.3
동남아시아	16.81	18.69	19.10	18.30	△2.1	△4.2
중국	151.60	151.83	153.00	156.00	2.7	2.0
수입량	90.92	95.57	86.38	83.23	△12.9	△3.6
이집트	4.83	4.20	4.30	4.30	2.4	0.0
EU27	7.06	13.00	4.00	3.00	△76.9	△25.0
일본	16.71	16.60	16.10	16.10	△3.0	0.0
멕시코	8.94	9.20	10.50	9.50	3.3	△9.5
동남아시아	3.96	3.15	3.75	3.80	20.6	1.3
한국	8.74	9.10	8.20	7.70	△15.4	△6.1
소비량	728.31	775.32	799.66	796.47	2.7	△0.4
미국	230.77	264.04	272.94	270.40	2.4	△0.9
EU27	62.30	61.50	61.00	61.00	△0.8	0.0
일본	16.50	16.50	16.10	16.10	△2.4	0.0
멕시코	30.70	32.00	33.00	33.00	3.1	0.0
동남아시아	20.70	21.30	22.33	21.98	3.2	△1.6
한국	8.83	9.10	8.30	7.80	△14.3	△6.0
중국	145.00	149.00	157.00	158.00	6.0	0.6
수출량	93.90	96.83	88.82	86.07	△11.1	△3.1
미국	53.99	61.60	50.80	50.80	△17.5	0.0
아르헨티나	15.31	15.00	15.00	13.00	△13.3	△13.3
중국	5.27	0.60	0.50	0.50	△16.7	0.0
기말재고량	108.54	123.46	112.38	109.94	△11.0	△2.2
미국	33.11	40.02	28.79	25.86	△35.4	△10.2
아르헨티나	1.66	0.66	0.96	0.96	45.5	0.0
EU27	7.38	5.70	6.29	4.83	△15.3	△23.2
중국	36.60	38.88	34.48	36.48	△6.2	5.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89.66	280.87	286.61	288.12	2.6	0.5
기초재고량	53.10	62.65	49.25	50.13	△20.0	1.8
생산량	236.56	218.22	237.36	237.99	9.1	0.3
미국	86.77	70.36	80.90	79.85	13.5	△1.3
아르헨티나	48.80	46.50	49.50	50.50	8.6	2.0
브라질	59.00	61.00	62.50	62.50	2.5	0.0
중국	15.20	13.50	16.00	16.50	22.2	3.1
수입량	69.20	78.30	76.23	77.47	△1.1	1.6
중국	28.73	36.50	36.00	36.00	△1.4	0.0
EU27	15.29	15.40	13.65	14.35	△6.8	5.1
일본	4.09	4.05	4.05	4.05	0.0	0.0
소비량	224.76	230.08	237.88	236.76	2.9	△0.5
미국	53.24	51.00	53.89	53.05	4.0	△1.6
아르헨티나	35.09	36.87	39.24	39.04	5.9	△0.5
브라질	34.02	35.20	35.50	35.50	0.9	0.0
중국	45.40	48.85	51.27	51.57	5.6	0.6
EU27	16.09	16.18	14.41	14.99	△7.4	4.0
일본	4.31	4.26	4.26	4.26	0.0	0.0
멕시코	4.02	3.84	3.74	3.74	△2.6	0.0
수출량	71.45	78.97	75.67	77.60	△1.7	2.6
미국	30.39	31.43	27.22	27.22	△13.4	0.0
아르헨티나	9.56	13.50	12.90	13.90	3.0	7.8
브라질	23.49	25.50	27.50	27.50	7.8	0.0
기말재고량	62.65	50.13	49.28	51.23	2.2	4.0
미국	15.62	3.81	3.69	3.67	△3.7	△0.5
아르헨티나	22.61	21.69	22.15	22.58	4.1	1.9
브라질	18.19	18.64	17.99	18.30	△1.8	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8	2008.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9.73	165.74	169.65	169.20	2.1	△0.3
기초재고량	5.92	5.99	6.42	6.55	9.3	2.0
생산량	153.81	159.75	163.23	162.65	1.8	△0.4
미국	39.06	39.02	39.09	38.50	△1.3	△1.5
아르헨티나	26.06	27.66	29.25	29.44	6.4	0.6
브라질	24.11	24.97	25.18	25.19	0.9	0.0
인도	5.28	6.39	6.28	6.31	△1.3	0.5
중국	28.09	30.69	32.47	32.60	6.2	0.4
수입량	52.63	55.08	56.29	55.74	1.2	△1.0
EU27	22.18	23.90	23.00	23.00	△3.8	0.0
중국	0.03	0.20	0.20	0.20	0.0	0.0
소비량	152.37	158.07	161.86	161.04	1.9	△0.5
미국	31.18	30.62	31.25	30.84	0.7	△1.3
아르헨티나	0.59	0.63	0.67	0.67	6.3	0.0
브라질	11.12	12.00	12.30	12.75	6.3	3.7
인도	2.02	1.59	2.50	1.63	2.5	△34.8
EU27	33.19	35.17	33.12	33.54	△4.6	1.3
중국	27.26	30.22	32.07	32.20	6.6	0.4
수출량	54.00	56.21	57.82	57.63	2.5	△0.3
미국	7.99	8.57	7.98	7.80	△9.0	△2.3
아르헨티나	25.63	26.90	28.50	28.79	7.0	1.0
브라질	12.72	12.40	13.20	12.80	3.2	△3.0
인도	3.46	4.85	3.80	4.70	△3.1	23.7
기말재고량	5.99	6.55	6.25	6.26	△4.4	0.2
미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65	1.54	1.63	△1.2	5.8
브라질	1.91	2.61	2.42	2.38	△8.8	△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00	239,361	205,328	26,010	34,033	16.6
2007/08(E)	211,670	245,703	211,061	26,864	34,642	16.4
2008/09(P)	219,496	254,138	217,411	26,410	36,727	16.9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 9)*

이 형 우

지난 9월 1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쇠고기 및 돼지고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 닭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 쇠고기

올해 허리케인 강우로 겨울 밀 및 목초 재배환경이 개선되어 곡물 및 단백질 사료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하락하였으나 2008/09년 평균 전망치보다는 높은 편이다.

보통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허리케인 강우로 겨울 밀 및 목초 재배환경이 개선되었다. 옥수수 및 기타 곡물 수확 추세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애팔래치아 산맥 북부 및 남서부 지역에는 아직 가뭄 여파가 남아 목초재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곡물 및 단백질 사료 가격은 지난 두달 동안 하락하였으나, 2008/09년 평균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생산

7월 1일 사육두수 및 일반적인 도축 패턴과 비교해 볼 때, 암소 도축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도축되는 소 중에서 캐나다에서 수입된 암소 및 수소는 비교적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7월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미경산우 대 출하두수 비율은 2003년 7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년 9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lhw0906@krei.re.kr, 02-3299-4309)

사육비용의 증가, 쇠고기 수출 증가, 암소 도축 증가, 번식우 사육두수 감소, 암소 비육 증가 등은 미국의 번식우 사육두수 감소와 2009년 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사육비용 상승, 특히 사료,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가격

지난 몇 주 동안 중(重) 체중 비육우 및 저체중 비육우 사이의 가격 격차는 줄어들었다. 2008년 8월 오클라호마시에서 700~750 파운드 미경산우와 450~500파운드 소의 100파운드당 가격 차이는 1달러에 불과했다. 같은 곳에서 750~800파운드 대 600~650파운드간의 가격 격차는 100파운드당 1.29달러로써, 2007년 8월의 6.79달러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다른 때와 달리 7월 중순 이후 강우로 비육 밀소들이 목장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었으며,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밀급여 목장의 사육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거세우 및 미경산우 도체중이 증가하면서 120일 이상 비육우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초이스 이상 등급 출현율은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겨울에 밀을 충분히 급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입식두수는 2007년 7월보다 3.5% 증가하였다. 현재 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육업자들은 100파운드당 90달러 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손익 분기점은 현재 가격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초이스급 쇠고기 소매가격은 2008년 7월 추정치보다 4.4% 높게 형성되었다. 초이스급 8월 평균 소비자 가격은 파운드당 4.53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가격보다 9% 상승하였다.

소 사육비용 증가, 쇠고기 수출증가, 암소 도축증가, 번식우 사육두수 감소, 암소 비육 증가 등은 미국의 번식우 사육두수 감소와 2009년 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입

미국산 쇠고기 수출 증가로 미국 비육우와 쇠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출이 증가한 것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요증가 때문이다. 호주달러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강세로 7월 중순 이후 쇠고기 수입가격은 하락하였다. 수입가공육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노페우 도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낙농

생산

9월 원유 생산량 전망치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2008년 연평균 젖소 사육두수는 926만두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사료비 상승과 우유 가격 하락으로 2008년보다 다소 감소한 923만 5천두로 전망된다. 젖소 도축은 1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노페우 가격은 하락하였다.

2008년 연평균 젓소 사육두수는 926만두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사료비 상승과 우유 가격 하락으로 다소 감소한 923만 5천두로 예상된다.

우유 생산량 증가 폭은 작으나 국내외 소비가 둔화되어 2008년, 2009년 유제품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당 산유량 증가로 2009년 원유 생산량은 2008년보다 증가한 1,908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두당 산유량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료비 상승과 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2005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09년에도 증가율이 둔화되어 2004년 이후 두당 산유량 증가 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유제품의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올해 치즈와 버터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분유 재고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버터와 탈지분유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줄어들어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경기 침체, 미 달러화 강세, 해외 유제품 생산량 증가는 미국 유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가격

우유 생산량 증가 폭 둔화로 유제품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여지는 있으나, 국내 외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2008년, 2009년 유제품 가격은 2007년과 비교하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905~1.925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올해보다 하락한 1.840~1.94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버터 가격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 평균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405~1.445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350~1.480달러로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탈지분유 가격은 2007년보다 낮은 파운드당 1.375~1.395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올해보다 상승하여 파운드당 1.455~1.525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유장 가격은 2007년 높게 형성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유장 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파운드당 26~28센트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다소 상승한 26~29센트로 전망된다.

2008년 원유 III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17.65~17.85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6.75~17.75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원유 IV등급 가격은 2008년 100파운드당 15.80~16.10달러에서 2009년 16.10~17.2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로 평균 원유가격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평균 원유 가격은 100파운드당 18.65~18.85달러로 전망되고, 2009년에는 다소 하락한 17.85~18.85달러로 전망된다.

3. 양돈

가격

7~8월 평균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파운드당 2.9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상승하였다. 돼지고기 수출 수요 강세에 따른 돼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

자 가격은 조금 상승하였다. 2008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1% 상승한 파운드당 2.90달러 하단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올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2008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2007보다 5.7% 감소하고, 쇠고기, 닭고기 등 대체재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올해보다 3% 상승한 2.90달러 상단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수출

7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4억 900만 파운드로 지난해 7월보다 86% 증가하였으며, 1~7월 수출량은 29억 파운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증가하였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3%에서 올해 23%로 높아졌다. 돼지고기는 주로 일본, 홍콩,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표에 제시된 10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올해보다 3%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3%에서 올해 23%로 높아졌다.

표 1 국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8년 1~7월	2007년 1~7월	증감률(08/07)	2008년 7월	2007년 7월	증감률(08/07)
일본	771	633	22	115	79	45
홍콩	362	39	827	52	8	526
멕시코	349	255	37	67	34	98
중국	334	107	212	21	19	13
러시아	267	109	144	38	14	168
캐나다	237	189	26	39	28	38
한국	194	157	23	21	12	79
호주	62	49	25	7	5	53
필리핀	50	9	452	6	1	502
대만	32	26	21	6	2	144
계	2,902	1,699	71	409	220	86

자료: USDA/ERS. <http://www.ers.usda.gov/data/meattrade/>

수입

7월 미국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6,800만 파운드로 전년 동월보다 17% 감소했으며, 2008년 7월까지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약 15% 감소하였다.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2007년 1~7월 캐나다와 덴마크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 중에서 약 90%를 차지하였지만, 멕시코, 폴란드, 네덜란드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1~7월에는 85%를 차지하였다.

2008년 7월 캐나다로부터의 돼지 수입 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5% 감소한 74만 4천두였다. 육성돈(15~110파운드)과 비육돈(도축 전 단계) 수입이 감소했는데 이는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 육가공업자의 돼지 수요가 증가하였고, 운송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4. 닭고기

생산

미국의 2008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93억 파운드, 4분기는 92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미국의 2008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1.9%(5천만 파운드) 증가한 93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동기보다 1.0% 감소한 92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도계수수와 생체중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사료가격 호전으로 2009년 3,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당초 예상 전망치보다 증가하나, 2008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몇 주 동안 병아리 생산수수가 크게 감소하여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브로일러 시장의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이미 9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으며, 입란수 또한 감소하고 있다.

대닭(큰 닭)의 증가로 2008년 3분기 브로일러 도계수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7월 5일~9월 5일까지의 큰 닭(3.5kg 이상) 도계수수의 생체중이 전년 동기간보다 116% 증가하였으나, 3.5kg 이하 등급의 경우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미국의 7월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5.6% 증가한 32억 파운드였다. 이는 도계 작업일수가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며, 도계수수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7억 8천 만수, 평균 생체중 또한 5.54파운드(2.5kg)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다.

9월 첫째주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간보다 3.4% 감소한 1억 7천 만수였으며, 이러한 생산수수는 사육기간(대략 7, 8주)을 감안할 때, 10월 하순에 도계될 물량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일러 계열 업체는 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에 직면해 있다. 수출 증가로 다리살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슴살 가격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락하였다.

닭고기 재고는 전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분기말 닭고기 재고량은 7억 4천만 파운드였다.

재고

닭고기 재고는 전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분기 말 닭고기 재고량은 7억 4천만 파운드였다. 7월말 현재 닭고기 재고량은 7억 1천만 파운드로 6월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다. 다양한 제품들이 도매가격의 변동

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1/4 다리살 가격의 고공 행진에도 불구하고 1/4 다리살 재고는 7월말 현재 전년보다 27% 증가하였다.

가격

큰 닭 도계수수가 증가하면서, 가슴살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하여 가슴살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8월 북동부 시장의 빼 없는 가슴살 가격은 파운드당 1.29\$로 3개월 전보다 21센트, 전년보다 30센트 하락하였다. 빼 없는 다리살 가격은 파운드당 1.30\$로 다리살 가격이 가슴살 가격을 추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

2008년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66억 7천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2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17억 9천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4분기에는 다리살 가격이 높아 수출이 다소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까지의 올림픽 특수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6월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34% 증가한 6억 5천만 파운드였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러시아로의 수출물량이 여전히 많으며, 중국, 멕시코, 한국,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리살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2008년 7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20억 달러였다.

5. 계란

생산

7월 계란(식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5억 4천만 판(12개들이)으로 이는 두 달 연속 증가세이다. 올해 1~7월 계란(식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다소 감소한 37억판이었다. 이는 산란용 마리수가 2억 7천만수로 전년보다 1.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가격

3월 가격이 1.62\$를 기록하였으나 5월에는 1.04\$까지 하락하는 등 지난 8월까지의 뉴욕 계란 가격은 급등락을 보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8월 뉴욕 계란 도매가격은 1.22\$(대란 12개들이)였다. 계란 가격 강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3분기 계란 가격은 1.15~1.18\$로 추정되며, 4분기 계란 가격은 1.22~1.28\$로 예상된다.

7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5억 4천만 판으로 이는 두 달 연속 증가세이다. 미국의 계란 가격은 강세를 보여 2008년 1~7월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하였다.

수출

미국의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여 2008년 1~7월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하였다. 계란 수출 감소의 원인은 주요 계란 수출 대상국인 멕시코, 홍콩 (40% 감소) 등으로의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수출량이 증가한 유일한 국가는 캐나다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국내 계란 가격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8년 3, 4분기 계란 수출량 또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171/Sept 19, 2008 발취정리

표 2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26,421	6,371	6,897	6,900	6,520	26,688	6,275	6,285	26,550
-돼지고기	21,943	6,023	5,593	5,620	6,240	23,476	5,840	5,505	22,980
-양고기	183	46	43	42	43	174	44	44	172
-닭고기	36,126	9,108	9,434	9,300	9,200	37,040	8,945	9,345	36,740
-칠면조고기	5,958	1,541	1,565	1,560	1,575	6,241	1,505	1,530	6,105
-전체 육류	91,264	23,258	23,712	23,601	23,754	94,325	22,779	23,375	93,149
-계란, 백만판/12개	6,435	1,590	1,581	1,610	1,650	6,431	1,590	1,585	6,435
1인당 소비량, 파운드									
-쇠고기	65.2	15.6	16.3	16.3	15.3	63.5	15.1	16.1	62.7
-돼지고기	50.8	12.6	11.7	11.5	12.3	48.2	12.1	11.8	47.4
-양고기	1.1	0.3	0.2	0.2	0.3	1.0	0.3	0.3	1.0
-닭고기	85.4	21.2	21.4	21.2	21.1	84.9	20.6	21.4	84.0
-칠면조고기	17.5	4.0	4.1	4.4	5.5	18.0	3.8	4.2	17.4
-전체 육류	221.6	54.0	54.3	54.1	54.9	217.4	52.3	54.2	214.1
-계란, 개수(백만더즌)	250.1	61.8	61.4	62.6	63.9	249.8	61.2	60.7	247.0
시장가격									
-초이스급 거세우(Neb, \$/cwt)	91.82	89.59	92.82	98-99	96-100	94-96	94-102	95-103	94-102
-비육필소(Ok City, \$/cwt)	108.23	99.88	106.60	100-114	100-114	106-110	106-114	110-118	109-117
-유틸리티급정육(S.Falls, \$/cwt)	52.12	53.88	57.30	58-60	54-58	56-58	53-57	53-58	52-56
-초이스급양고기(SanAngelo, \$/cwt)	84.93	86.23	79.62	86-90	95-93	82-90	86-94	88-96	87-95
-돼지고기(N. base, l.e. \$/cwt)	47.09	39.64	52.51	56-57	47-49	49-50	50-54	53-57	51-56
-닭고기(12도시, cents/lb)	76.40	78.1	80.60	80-81	79-83	79-81	80-86	82-88	82-89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2.10	77.4	89-90	96-97	94-98	88-90	80-86	87-95	89-96
-계란(뉴욕, cents/doz)	114.4	158.8	117.30	115-118	122-128	128-131	126-136	123-133	122-132
교역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수출량	1,431	360	460	460	445	1,725	425	500	1,915
-쇠고기 수입량	3,052	637	660	640	615	2,552	665	745	2,835
-양고기 수입량	202	52	44	43	50	189	51	44	188
-돼지고기 수출량	3,138	1,106	1,350	1,400	1,550	5,406	1,150	1,200	5,100
-돼지고기 수입량	968	217	205	215	225	862	215	205	850
-닭고기 수출량	5,771	1,507	1,775	1,650	1,630	6,562	1,525	1,575	6,275
-칠면조 고기 수출량	553	148	155	160	160	623	145	155	635
-모든 수입두수(천두)	10,005	2,915	2,150	2,050	1,950	9,065	1,950	1,950	7,8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낙농업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젖소 (천두)	9,158	9,249	9,274	9,270	9,255	9,262	9,250	9,240	9,236
두당 산유량 (파운드)	20,267	5,140	5,250	5,045	5,035	20,470	5,155	5,315	20,660
우유 생산량 (십억파운드)	185.6	47.5	48.7	46.8	46.6	189.6	47.7	49.1	190.8
- 농가소모분	1.2	0.3	0.3	0.3	0.3	1.2	0.3	0.3	1.2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3	188.4	47.4	48.8	189.6
유지방 (원유환산, 십억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3	188.4	47.4	48.8	189.6
- 연초 재고량	9.5	10.4	12.1	13.6	11.6	10.4	9.5	11.0	9.5
- 수입량	4.6	1.0	0.7	0.9	1.1	3.7	1.0	0.9	4.0
- 총공급량	198.6	58.6	61.3	61.0	59.0	202.5	57.9	60.7	203.1
- 수출량	5.7	2.2	2.5	2.1	1.9	8.7	1.8	1.7	6.7
- 연말 재고량	10.4	12.1	13.6	11.6	9.5	9.5	11.0	12.8	8.9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2.5	44.2	45.1	47.3	47.6	184.3	45.1	46.2	187.5
전지방유 (원유환산, 십억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3	188.4	47.4	48.8	189.6
- 연초 재고량	9.1	9.9	10.1	10.6	10.0	9.9	9.8	9.7	9.8
- 수입량	4.4	1.0	0.8	0.8	1.0	3.6	0.9	1.0	3.9
- 총공급량	198.0	58.1	59.3	57.9	57.3	201.9	58.1	59.5	203.3
- 수출량	24.5	6.7	7.6	6.7	6.2	27.2	6.2	6.1	24.0
- 연말 재고량	9.9	10.1	10.6	10.0	9.8	9.8	9.7	10.6	9.6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63.6	41.4	41.1	41.2	41.3	164.9	42.2	42.8	169.7
우유가격 (달러/100파운드) 1)									
- 우유	19.13	19.23	18.57	18.55	18.20	18.65	17.85	17.60	17.85
				-18.75	-18.70	-18.85	-18.65	-18.60	-18.85
- III 등급	18.04	18.12	18.40	17.35	16.71	17.65	16.57	16.83	16.75
				-17.55	-17.21	-17.85	-17.37	-17.83	-17.75
- IV 등급	18.36	15.04	15.25	16.54	16.53	15.80	15.90	15.61	16.10
				-16.84	-17.13	-16.10	-16.80	-16.71	-17.20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738	1.933	1.977	1.873	1.842	1.905	1.830	1.850	1.840
				-1.893	-1.892	-1.925	-1.910	-1.950	-1.940
- 유장 분말	0.600	0.305	0.267	0.240	0.242	0.260	0.265	0.255	0.260
				-0.260	-0.272	-0.280	-0.295	-0.285	-0.290
- 버터	1.344	1.230	1.411	1.543	1.453	1.405	1.345	1.365	1.350
				-1.583	-1.533	-1.445	-1.455	-1.495	-1.480
- 탈지분유	1.708	1.364	1.300	1.383	1.453	1.375	1.433	1.392	1.455
				-1.403	-1.493	-1.395	-1.493	-1.462	-1.525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4 생산 지표

구분	단위	2007. 8	2008		
			6	7	8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0,299	10,815	10,295	9,869
입식두수	1,000 두	2,069	1,458	1,621	2,012
출하두수	1,000 두	2,066	1,978	2,047	1,884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74,016	674,213	657,943	650,798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826,599	806,202	806,555	799,625
중계수수	1,000 수	56,246	57,055	55,984	55,184
6개월 미만 중계수수 /1	1,000 수	7,792	7,772	7,065	8,031
중계 도태수수 /2	1,000 수	7,405	7,406	7,887	7,446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3,457	31,854	32,814	31,883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6,523	25,557	26,551	24,467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38.6	522.9	540.3	537.1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1,680	279,948	278,718	277,080
산란율 /1	%	74.2	73.9	75.8	74.7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36,930	42,538	37,929	36,301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5,017	6,229	5,941	5,577

주: 1) /* 조사대상은 1,000 두 이상 사육농가임.
 2) /1 월초 기준임.
 3) /2 월말 추정량임.

표 5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분	2007. 8	2008		
		7	8	9 /*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순익분기점 /*	97.64	101.61	105.07	108.43
판매가격	94.79	98.58	99.07	98.90
순이익	-2.85	-3.03	-6.00	-9.53

주: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표 6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2000=100

구분	2007. 8	2008		
		7	8	9 /*
육계				
사료비	125.6	184.9	208.3	206.4
시장가격	135.9	127.4	126.0	136.7
이윤(가격-비용)	139.5	107.1	97.0	112.1
칠면조				
사료비	144.7	204.2	203.7	232.5
시장가격	140.7	140.7	146.7	150.7
이윤(가격-비용)	138.9	111.9	120.7	113.5
계란				
사료비	134.7	242.5	235.5	235.4
시장가격	166.8	138.5	146.5	158.8
이윤(가격-비용)	183.6	84.1	99.9	118.8

주: /* 추정치임.

표 7 육류 통계

구 분	2007. 1~9	2008					
		1~9	5	6	7	8	9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19,687	20,179	2,380	2,263	2,373	2,269	2,269
- 송아지고기	106	105	12	12	12	11	13
- 돼지고기	15,778	17,251	1,816	1,762	1,853	1,804	1,977
- 양고기	135	130	15	13	14	13	14
적색육 전체	35,706	37,664	4,222	4,050	4,252	4,097	4,272
- 육계	26,841	28,016	3,161	3,078	3,225	3,081	3,170
- 기타 계육	371	424	50	49	51	49	42
- 칠면조육	4,383	4,669	521	524	548	508	507
백색육 전체	31,596	33,109	3,731	3,651	3,824	3,637	3,720
전체 육류 생산량	67,302	70,773	7,953	7,701	8,076	7,734	7,992
도축두수(천두)							
소	25,684	26,189	3,140	2,956	3,064	2,911	2,890
- 거세우	13,392	13,314	1,677	1,576	1,604	1,471	1,410
- 미경산우	7,685	7,778	891	833	874	850	885
- 경산우	2,330	2,665	320	309	316	300	300
- 젖소	1,859	1,959	198	184	212	230	235
- 비거세우	417	474	54	54	58	60	60
- 송아지	573	686	71	75	88	79	87
양	1,978	1,889	206	192	208	201	205
돼지	78,776	86,293	9,063	8,885	9,465	9,268	10,021
- 비육돈	75,985	73,595	8,726	8,540	9,114	8,939	9,675
- 모돈	2,449	2,391	298	308	308	289	308
육계	6,658,615	6,799,194	761,980	747,140	785,435	743,511	764,790
칠면조	194,492	201,641	22,492	22,867	24,199	22,662	21,970

구 분	2007. 9	2008				
		5	6	7	8	9
정육량(파운드)						
소	791	762	770	779	784	787
송아지	168	162	157	141	143	145
양	65	74	70	67	67	67
돼지	200	201	199	196	195	197
재고 입고량(백만파운드)						
쇠고기	480.9	430.0	413.9	421.2	423.9	434.0
돼지고기	458.3	652.6	567.3	517.2	491.4	482.8
- 내장	21.4	100.2	87.4	74.4	58.0	31.8
- 햄	149.1	113.1	119.1	117.1	131.2	141.5
닭고기	652.4	752.9	755.1	768.8	738.9	754.8
칠면조고기	524.4	491.3	522.4	562.7	620.7	626.1
냉동달걀	18.5	16.0	12.4	16.1	21.1	20.1

표 8 생축 가격

구 분	2007. 9	2008				
		5	6	7	8	9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헨들	94.79	94.13	96.14	98.58	99.07	98.90
네브라스카	93.49	93.86	95.55	98.83	99.14	97.35
- 암소(수폴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5.10	61.13	64.31	64.90	65.75	62.30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52.88	59.38	58.13	63.35	63.00	58.05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550 파운드	127.24	125.80	119.95	120.58	128.88	123.00
2) 600~650 파운드	119.32	114.39	112.71	112.47	114.07	111.50
3) 750~800 파운드	117.04	107.76	109.74	110.85	112.78	110.80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21.88	111.37	106.20	104.42	107.84	106.80
2) 700~750 파운드	109.74	101.76	102.48	105.56	108.68	104.9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52% 기준	46.61	57.75	54.71	56.48	62.56	52.80
- 모돈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41.48	29.20	29.67	22.70	30.75	55.40

표 9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7. 9	2008				
		5	6	7	8	9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II	3.15	0.00	0.00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셸)	8.34	0.00	0.00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254.41	0.00	0.00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35.00	177.00	172.00	177.00	180.00	176.00
- 건초, U.S. Avg.(\$/톤)	124.00	134.00	130.00	130.00	126.00	122.00

표 10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7. 8	2008				
		4	5	6	7	8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46.99	156.07	159.10	167.33	162.31	159.50
셀렉트급 1-3, 600~900 lb	139.14	152.34	154.04	160.33	155.69	152.0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35.50	166.22	167.88	181.19	176.35	171.0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33.08	166.23	174.65	188.58	180.13	173.50
- 가죽 및 내장	9.90	N/A	N/A	N/A	11.80	11.70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66.14	80.01	77.73	82.71	89.57	76.00
- 등심, 14-19 lb BI 1/4" trim	100.18	130.43	115.19	117.11	128.86	114.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80.42	79.00	64.54	78.75	74.17	80.00
- 후지, 20-23 lb BI trmd. TS1	59.79	65.24	74.88	82.43	89.35	75.65
- 잡육, 72% fresh	54.25	68.18	63.78	75.03	94.74	72.55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8.19	81.58	82.48	84.60	79.34	78.00
- 조지아 독(Georgia dock)	80.60	81.84	83.87	86.77	86.88	86.60
- 북동부						
·뼈없는 가슴살	158.05	150.51	141.46	138.79	129.19	115.40
·뼈있는 가슴살	101.31	88.36	86.93	81.89	73.98	69.80
·다리(전체)	64.64	68.56	70.75	72.40	72.35	72.00
·다리(1/4도체)	47.22	47.91	49.53	53.63	55.45	55.3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21.96	94.43	112.01	101.23	107.04	116.10
- 뉴욕	129.89	103.76	124.86	105.41	119.00	114.00

표 11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 7	222.05	3.08	130.0	143.2	147.9
2007. 8	217.63	3.17	137.0	142.7	144.7
2007. 9	254.41	3.18	125.6	135.9	139.5
2007.10	260.55	3.21	126.3	120.3	118.2
2007.11	280.76	3.60	132.9	125.7	123.2
2007.12	314.78	4.01	134.4	121.9	117.5
2008. 1	331.28	4.58	144.3	127.9	122.1
2008. 2	345.88	4.87	156.9	132.6	124.0
2008. 3	331.57	5.14	169.1	125.7	110.4
2008. 4	329.94	5.58	176.4	120.8	101.2
2008. 5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 6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 7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 8	355.35	5.04	208.3	126.0	97.0

표 12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 7	222.05	3.08	149.7	143.8	140.7
2007. 8	217.63	3.17	133.2	137.6	139.8
2007. 9	254.41	3.18	134.7	166.8	183.6
2007.10	260.55	3.21	140.9	144.8	146.9
2007.11	280.76	3.60	142.6	188.8	212.9
2007.12	314.78	4.01	155.4	209.0	237.0
2008. 1	331.28	4.58	171.0	205.2	223.1
2008. 2	345.88	4.87	187.6	202.6	210.5
2008. 3	331.57	5.14	197.1	212.0	219.8
2008. 4	329.94	5.58	201.4	165.3	146.5
2008. 5	325.48	5.61	211.9	129.2	85.9
2008. 6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 7	412.25	6.00	242.5	138.5	84.1
2008. 8	355.35	5.04	235.5	146.4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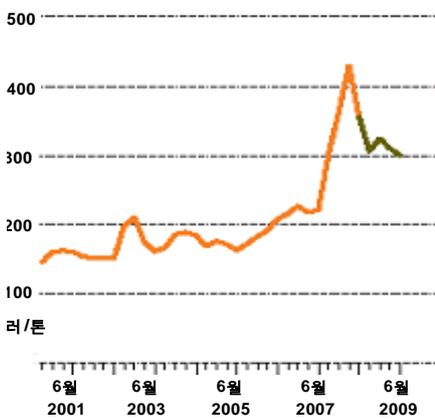
2008~09년 세계 및 호주 곡물 전망*

권 오 복

2007년도 하반기부터 2008년 초반까지 국제 곡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농업자원경제국(ABARE)이 발표한 2008~09년 곡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밀

그림 1 국제 밀 가격 추이



2008년 3월 국제 밀 가격이 (미국 동계 경질밀, 걸프만 fob 가격 기준) 톤당 454달러로 정점에 이른 후 하향세를 나타내다가 4월에 톤당 388달러, 5월에 346달러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제 밀 가격이 하향국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세계 밀 공급이 소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8~09년 국제 밀 가격은 전년의 톤당 362달러보다 낮은 수준인 320달러로 나타날 전망이다. 비록 세계 밀 공급량이 늘어나겠지만 세계의 밀 재고 수준이 낮아 국제 밀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밀 재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밀 공급 부문에서 차질이 생기면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국(ABARE)이 발간한 2/4 분기 농업전망 결과 중 축산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번역한 것이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국제 밀 가격의 인하와 호주 내 밀 생산의 증가 전망에 따라 호주의 밀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 호주의 백색 밀 (Australian premium white wheat: APW)의 톤당 가격은 전년의 419호주달러에서 370호주달러로 전망된다.

2008~09년 세계 밀 생산 증가 전망

2008~09년 세계 밀 파종 면적은 전년대비 4% 증가하여 과거 10년간 가장 넓은 면적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 밀 파종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최근 국제 밀 가격이 강세를 띠기 때문이다. 세계 밀 단수가 예년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 2008~09년 세계 밀 생산량은 4,500만 톤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2008~09년 세계 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재고도 어느 정도 방출될 것으로 보여 2008~09년 세계 밀 공급은 전년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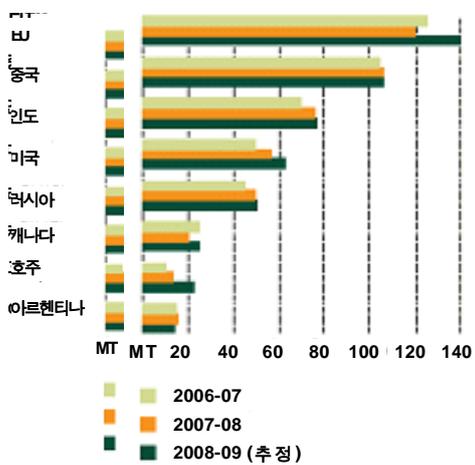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5대 밀 생산국 중 유럽연합과 미국의 밀 생산이 각각 17%, 13%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의 밀 생산은 생산량이 많았던 전년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 세계 5대 밀 수출국의 2008~09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4,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는 국제 밀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휴경비율을 영(零)으로 낮추는 정책 변화로 2008~09년 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에서 기후조건이 지금처럼 계속 좋다면 2008~09년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2,000만 톤 늘어난 1억 4,0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2008~09년 미국의 밀 파종면적 역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밀 파종 면적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면적이다. 이에 따라 2008~09년 미국의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6,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물의 생육상태에 대해서는 다소의 우려도 있다. 2008년 6월 17일 미 농무부가 발표한 주간 기후 및 작물소식지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에 따르면 파종된 동계 밀의 22% 가량의 생육상황이 양호하지 않고 47%만이 양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08년에는 22% 정도가 불량이고,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09년 미국의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7백만 톤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밀 생산량은 4,5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재고도 어느 정도 방출될 것으로 보여 세계 밀 공급은 전년대비 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밀 주요 생산 및 수출국의 밀 생산 추이



국제 밀 가격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밀 소비는 높은 수준 유지할 듯

2008~09년 국제 밀 가격은 강세를 띠 전망이지만 세계 밀 소비는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국제 밀 가격이 강세를 띠 전망이지만 세계 밀 소비는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밀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은 식용으로 전체 밀 소비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식용 밀 소비는 연평균 1% 증가해 왔다. 2008~09년에도 식용 세계 밀 소비는 1%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전체 밀 소비는 사료용 밀 소비 추세와 함께 변화해 왔는데 2008~09년 사료용 밀 소비는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사료용 밀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유럽연합과 러시아로서 세계 전체 사료용 밀 소비의 70% 가량을 소비한다.

유럽연합에서 사료용 밀 공급이 증가하고 다른 사료 작물 대비 밀 가격이 저렴하여 2008~09년 유럽연합의 사료용 밀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 전체 소비량에 비추어 볼 때 바이오연료 생산용(또는 공업용) 밀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지난 5년간 공업용 밀 소비는 세계 전체 밀 소비의 2% 정도이다. 2008~09년 공업용 밀 소비량은 세계 전체 밀 소비량의 약 3%에 해당하는 1,8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 밀의 세계 교역량 증가 전망

2008~09년 세계 밀 교역량은 약 4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밀 수출국에서 생산이 18% 정도 증가해 세계 5대 밀 수출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세계 밀 교역량은 약 4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국에서 밀 생산이 18% 정도 증가하고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세계 5대 밀 수출국의 2008~09년 밀 수출량은 전년대비 2%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알제리,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베트남 등의 밀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의 밀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전년에 이어 7,5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만해도 인도의 연간 밀 수입량은 2만 3,000톤에 불과했었는데 2006~07년과 2007~08년 인도의 밀 수입량은 각각 670만 톤, 200만 톤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인도 정부는 자국민에게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밀 수매제도를 실시중인데 인도 밀 재배농가로부터의 수매량은 인도 정부의 밀 분배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말 2008~09년의 경우 인도는 밀수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1 세계 및 호주의 밀 전망

품 목	단위	2006~07	2007~08 ¹⁾	2008~09 ²⁾	증감률(%)
세 계					
생 산	백만톤	593	604	650	7.6
중 국	백만톤	105	106	106	0.0
EU-27	백만톤	125	102	140	16.7
인 도	백만톤	69	76	77	1.3
러시아	백만톤	45	49	50	2.0
미 국	백만톤	49	56	63	12.5
소 비	백만톤	611	612	632	3.3
식 용	백만톤	442	444	450	1.4
사료용	백만톤	96	89	102	14.6
기 말 재 고	백만톤	120	112	131	17.0
무 역	백만톤	110	105	109	3.8
수 출					
아르헨티나	백만톤	12	10	10	0.0
호 주	백만톤	11	7	14	100.0
캐나다	백만톤	19	15	16	6.7
EU-27	백만톤	13	11	14	27.3
미 국	백만톤	25	35	25	-28.6
가 격	달러/톤	212	362	320	-11.6
호 주					
재배면적	천ha	11,798	12,345	13,971	13.2
생산량	천톤	10,822	13,039	23,680	81.6
수출물량	천톤	11,196	6,750	14,078	108.6
수출금액	백만호주달러	2,765	2,592	5,037	94.3
APW 농가수취가격	호주달러/톤	240	419	370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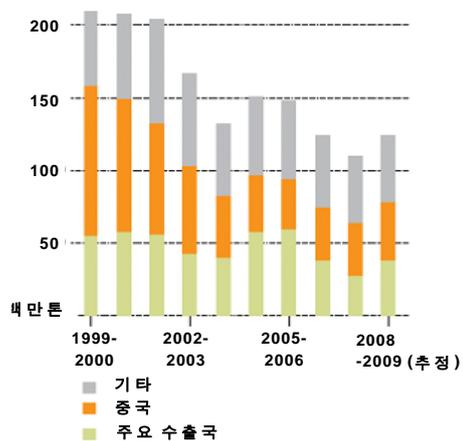
주: 1) 전망치, 2) ABARE 추정치

밀 재고 여편이 낮은 수준

2008~09년 말 세계 밀 재고량은 2007~08년보다 1,900만 톤 많은 1억 3,10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고량은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재고가 적기 때문에 밀 가격은 강세를 떨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5대 수출국의 고품질 밀 재고량은 최근 5년간 처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8~09년 말 이들 국가가 보유한 밀 재고 수준은 전년보다 1,100만 톤 많은 3,8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밀 재고량은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8~09년 중국의 밀 재고량은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세계 밀의 재고 추이



오주 밀 생산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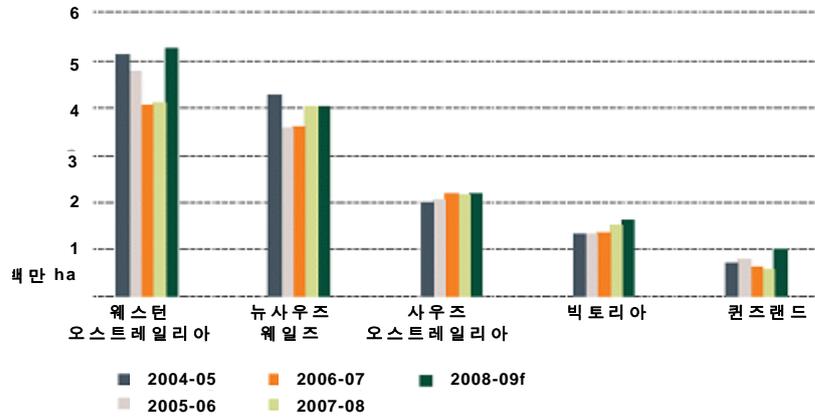
2008~09년 호주의 밀 파종 면적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400만 ha로 추산된다. 밀 가격이 호조를 띠는 가운데 소득 확보를 위해 농가들이 밀 재배를 늘렸다. 2008~09년 호주의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1,100만 톤 많은 2억 3,7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4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곡창지대에서는 강우량이 풍부해 동계작물을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비가 내리지 않아 밀이 발아하는데 지장을 받고 파종을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밀 파종면적은 520만 ha로 추산된다.



2008년 6월 초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북부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 가뭃기에 파종한 밀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고 농가들이 미처 파종하지 못한 밀을 파종할 수 있었다. 뉴사우스웨일즈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에는 가뭃이 계속되는 가운데 밀 파종이 이루어졌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빅토리아에는 5월에 비가 내려 가뭃상태에서 파종된 밀 발아가 촉진되었고 농가들이 미처 파종하지 못한 밀을 추가로 파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가뭃이 계속되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밀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호주의 주별 밀 재배면적 추이



오주 국내 밀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

국제 밀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호주 밀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2008~09년 호주의 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백색밀의 톤당 2008~09년 가격은 전년의 419호주달러에서 370호주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호주에서 사료곡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와 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밀의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2008년 5월 기준 사료용 밀의 톤당 가격은 430 호주달러로 3월 513 호주달러와 전년 동월 470달러보다 낮다.

오주 밀 수출 증가할 전망

전년보다 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유통연도 중 호주의 밀수출은 1,63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8~09년 회계연도 기준(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밀 수출액은 50억 호주 달러로서 전년보다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밀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여 호주의 밀 수출가격은 톤당 358 호주 달러에 그칠 전망이며 이것은 2007~08년 384 호주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2. 사료 및 기타 곡물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강세로 말미암아 2008~09년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 및 기타 곡물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옥수수 기준 톤당 국제 사료 및 기타곡물 가격은 전년대비 11달러 상승한 225달러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국제 사료 및 기타곡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주의 사료용 및 주정용 보리 가격은 생산 증가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호주의 사료용 보리가격과 주정용 보리가격은 각각 전년대비 10%, 8% 하락한 톤당 284 호주달러, 327 호주달러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호주의 보리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는 하락할 전망이지만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료 및 기타 곡물의 세계 생산 증가 전망

2008~09년 세계 사료 및 기타곡물 생산량은 옥수수 생산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11억 톤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사료 및 기타 곡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의 2008~09년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옥수수 생산 감소는 옥수수 다음으로 비중이 큰 보리 생산량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7% 감소한 4,100만 ha로 추산된다. 지난 수년간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상대수익 면에서 대두가 옥수수보다 높아 일부 농가들이 옥수수에서 대두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09년

2008~09년 세계사료 및 기타곡물 생산량은 옥수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11억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옥수수 다음으로 비중이 큰 보리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07~08년의 옥수수 생산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7% 감소한 3억 8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6월 중순 옥수수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미국 아이오와주에 홍수가 발생하였다. 홍수에 따른 피해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만일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지금 전망된 옥수수 생산량은 적어지고 옥수수의 국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2008~09년 중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옥수수 가격의 강세와 중국 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2,800만 ha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단수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08~09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억 5,0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07~08년 옥수수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생산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옥수수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여 2008~09년 브라질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3% 정도 늘어난 1,5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의 4,500만 톤보다 1,000만 톤 많은 5,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과거 10년간 평균 파종면적인 270만 ha보다 많은 310만 ha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35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2 세계 및 호주의 사료 및 기타곡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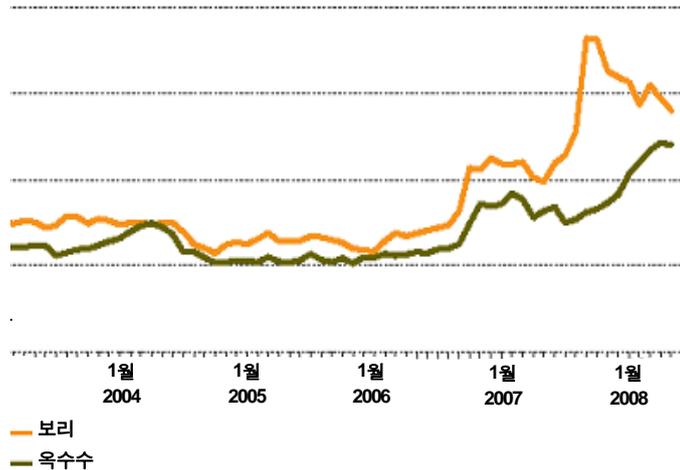
품 목	단위	2006~07	2007~08 ¹⁾	2008~09 ²⁾	증감률(%)
세 계					
생 산	백만톤	989	1,076	1,068	-0.7
보 리	백만톤	137	134	142	6.0
옥수수	백만톤	713	790	775	-1.9
소 비	백만톤	1,011	1,065	1,080	1.4
무 역	백만톤	117	125	119	-4.8
기 말 재 고	백만톤	140	146	131	-10.3
옥수수 가격 ³⁾	달러/톤	157	214	225	5.1
호 주					
재 배 면 적	천ha	6,216	6,529	6,678	2.3
보 리	천ha	4,182	4,405	4,484	1.8
수 수	천ha	613	800	763	-4.6
생 산 량	천톤	6,727	10,291	12,407	20.6
보 리	천톤	4,257	5,920	7,942	34.2
수 수	천톤	1,283	2,691	1,940	-27.9
수 출 물 량	천톤	3,255	4,273	5,783	35.3
수 출 금 액	백만호주달러	875	1,529	2,044	33.7
사료용 보리가격	호주달러/톤	276	315	284	-9.8
주정용 보리가격	호주달러/톤	321	355	327	-7.9

주: 1) 전망치, 2) ABARE 추정치, 3) 미국 걸프만 fob 9~8월 가격 기준

2008~09년 세계 보리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세계 보리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2008~09년 유럽연합의 보리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후조건이 좋아 유럽연합의 보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2백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도 기후조건이 좋고 단수가 평년수준을 유지하여 2008~09년 보리 생산량이 전년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캐나다의 옥수수과 보리 생산량은 농가들이 밀과 채유종실로 생산을 전환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옥수수의 경우 전년대비 파종면적은 12%, 생산량은 14% 감소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보리 단수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해 캐나다의 보리생산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보리 및 옥수수의 월별 국제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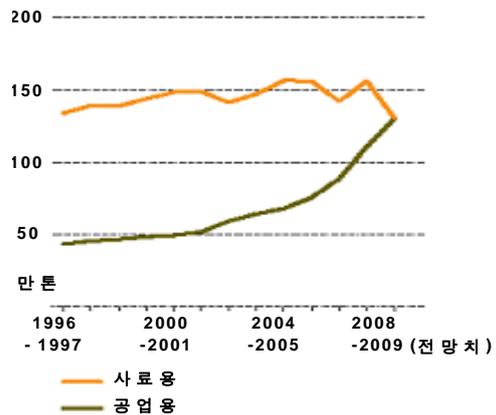
사료 및 기타곡물의 소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08~09년 세계 사료 및 기타곡물 소비는 11억 톤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료용 수요는 감소하고 에탄올 생산용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이 소비 증가 주도

세계 최대의 사료 및 기타곡물 소비국인 미국의 2008~09년 사료 및 기타곡물 전체 소비량은 전년보다 5백 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비 증가는 주로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2008~09년 미국의 사료용 곡물 소비는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사료용 밀과 증류곡물(distillers)이 배합사료의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류곡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발단계로 증류곡물이 동물 사료로 적합한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림 6 미국의 옥수수 이용



미국의 에탄올 산업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2000년 1월, 미국에는 연간 660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54개의 에탄올 공장이 있었는데 현재 134개로 늘어났고 연간 생산능력도 274억 리터로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77개의 에탄올 공장이 건설중에 있는데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235억 리터에 달하는 생산능력이 추가될 것이다.

2007년 미국 에너지 독립 및 안전법(US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따라 수송연료에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어 미국의 옥수수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동 법에 의하면 2008년까지 바이오 연료를 341억 리터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2007년 미국의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329억 리터였다.

유럽연합의 소비는 감소할 전망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밀 작황이 좋지 않아 사료용 곡물 소비가 많았지만 2008~09년에는 사료곡물 수요가 7백만 톤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2007~08년 유럽연합의 사료용 곡물 소비는 1억 1,600만 톤으로서 평년 수준인 1억 1,100만 톤보다 많았다. 2008~09년에는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이 늘고, 밀의 국제가격이 하락할 전망이어서 사료용 곡물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증가에 따라 재고는 감소할 듯

2008~09년 세계 사료 및 기타곡물의 기말재고는 1억 3,100만 톤으로 1970년대 후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해 미국의 옥수수 재고는 1,900만 톤으로 1972~73년 이래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중국의 옥수수 재고는 전년대비 1% 감소하여 1977~78년 이래 가장 낮은 재고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년 연속 옥수수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료용 곡물 수요와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옥수수 재고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보리 재고는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세계 보리 재고는 198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료 및 기타곡물의 세계 교역은 감소할 듯

2008~09년 사료 및 기타곡물 세계 교역량은 1억 1,900만 톤으로 전년대비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6% 감소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수출의 감소폭은 보리 수출 증가 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보리 수출은 이들 국가의 보리 수출에 부과하는 수출 제한이 완화되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5월 하순 러시아 농무부 장관은 2008년 6월 30일 이후에 곡물수출세(grain export duties)를 부과하지

2008~09년 세계사료 및 기타곡물의 기말재고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 사료용 곡물수요와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2008년 5월 우크라이나 정부도 곡물수출제한을 폐지하였다. 2008~09년 호주의 보리 생산 증가도 세계 보리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2007~08년 유럽연합은 역내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300만 톤의 사료 및 기타곡물을 수입하였다. 2008~09년에는 유럽연합의 사료 및 기타곡물 생산이 회복할 전망이어서 유럽연합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귀리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모든 곡물에 대해 수입관세 부과를 중단한 바 있다.

2008~09년 오주의 사료 및 기타 곡물 생산 증가 전망

2008~09년 호주의 보리 파종 면적은 450만 ha로 예년과 비슷하다. 같은 해 호주의 보리생산량은 전년보다 200만 톤이 증가한 8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확한 2007~08년 하계곡물 생산량은 평년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여름철에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북부지역에 예년 수준을 웃도는 비가 내려 수수의 단수가 평년수준보다 높았다. 2007~08년 호주의 수수 생산량은 270만 톤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1999~2000년 생산량보다도 60만 톤이 더 많다.

2008~09년 오주의 수출 증가 전망

물량기준으로 2008~09년 호주의 사료 및 기타곡물 수출은 생산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3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이 가장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곡물은 보리로서 2008~09년 호주의 보리 수출량은 전년대비 86만 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기준으로 2008~09년 호주의 사료 및 기타곡물 수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0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 호주의 보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8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회복에 힘입어 사료 및 기타곡물 수출도 전년대비 3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3. 채유종실

2007~08년 세계 채유종실 (oilseeds) 가격(대두, 로텔담 cif 기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09년에도 채유종실 및 채유종실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8~09년 세계 채유종실 가격은 전년의 톤당 550달러에서 578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세계 채유종실 생산 증가 전망

2008~09년 세계 채유종실 생산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4억 1,9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채유종실인 대두와 유채/캐놀라 생산이 2008~09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미국의 대두 파종면적은 2006~07년의 3,100만 ha보다 약간 작은 편이지

2008~09년 세계 채유종실 생산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4억 1,9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전년의 2,600만 ha보다는 큰 3,000만 ha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두 파종면적의 변화는 대두 가격의 강세와 작물윤작으로 대두 파종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8~09년 미국의 대두 파종면적은 늘어나고 옥수수 재배면적은 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후조건이 평년과 비슷할 경우 2008~09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8,5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2008년 6월 중순 미국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주 중 하나인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에 대한 정확한 피해상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가 심각할 경우 2008~09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현재 예측된 것보다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세계 대두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의 채유종실 주요 생산국이다. 2007~08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두 재배면적은 각각 1,700만 ha, 2,100만 ha이다. 같은 해 두 국가의 대두 생산량은 각각 4,700만 톤, 6,100만 톤이다. 대두의 단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ha당 2.8톤으로 전년보다 낮았으며 브라질의 대두 단수는 ha당 2.9톤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세계에서 캐놀라와 유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의 2008~09년 캐놀라 및 유채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충분히 오고 캐놀라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캐놀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2008~09년 캐나다의 캐놀라 재배면적은 600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캐나다의 캐놀라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0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바이오디젤로 인한 채유종실 수요 증가

2008~09년 세계 채유종실 소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4억 1,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식물성유 소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1억 3,200만 톤, 채유종실박 소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2억 3,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간 공업용 식물성유 소비가 2000~01년 1,000만 톤에서 2007~08년 2,300만 톤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원유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바이오연료의 의무적인 사용과 바이오디젤 공장의 투자 확대에 말미암아 2008~09년 식물성유의 공업용 이용량은 2,5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바이오디젤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2006년 6백만 톤에서 2007년 1,000만 톤으로 늘어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캐놀라와 유채 등의 식물성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식물성유의 식용 수요도 강세 유지

식용 식물성유의 소비도 2000~01년 7,900만 톤에서 2007~08년 1억 200만 톤으

2008~09년 세계채유종실 소비는 전년대비 3%, 식물성유 소비는 전년대비 5%, 채유종실박 소비는 전년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식물성유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중국의 식용 식물성유 소비는 연평균 8% 증가해 왔다.

2007~08년 식물성유 가격이 상승했지만 중국의 식물성유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2,200만 톤에 달했다. 중국의 1인당 식물성유 소비는 2000~01년 10kg에서 2007~08년에는 16kg으로 증가하였다. 2008~09년에는 소비가 더 늘어 1인당 소비량이 17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유종실박 소비 증가

지난 5년간 세계의 채유종실박 소비는 매년 4%씩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채유종실박 소비 증가에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크게 기여했는데 지난 5년간 중국과 유럽연합의 채유종실박 소비는 연평균 각각 6%, 2% 증가하였다.

러시아 역시 세계의 주요 채유종실박 소비국으로서 지난 10년간 채유종실박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채유종실박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가금육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대두박은 가금 사육에 쓰이는 주요 단백질원으로서 2007~08년의 경우 전체 대두박의 49%가 가금 사료로 이용되었다. 2008~09년에도 가금육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러시아의 대두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 채유종실의 세계 기말재고는 전년대비 2%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의 2008~09년 캐놀라 생산은 전년도의 110만 톤보다 많은 170만 톤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 증가 전망

2008~09년 채유종실의 세계 기말재고는 전년대비 2% 증가한 5,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에는 채유종실 및 채유종실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채유종실재고가 22%나 감소하여 2007~08년 기말 재고가 5,70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는 과거 5년간 평균 재고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두 주요 수출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2007~08년 대두 재고는 자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20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2008~09년 오주 생산 외복알 전망

호주에서는 지역별로 강우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캐놀라 파종 상황도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2008~09년 호주의 캐놀라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120만 ha로 예상된다.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2008~09년 동계작물철에 가뭄이 들어 캐놀라 파종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6%,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강우량이 충분하여 캐놀라 파종면적이 전년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지역도 4월중 강우량이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하여 캐놀라 파종면적이 전년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2008~09년 캐놀라 생산은 2007~08년의 110만 톤보다 많은 17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캐놀라 생육시기의 강우량이 그러한 전망치를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주 캐놀라 수출 증가 전망

2008~09년 호주의 캐놀라 수출은 캐놀라 생산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6% 증가한 80만 5,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3억 9,900만 호주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Leanne Lawrance, "Wheat",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 2, June Quarter 2008.
- Leanne Lawrance, "Coarse Grains",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 2, June Quarter 2008.
- Gayathiri Bragatheswaran, "Oilseeds",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 2, June Quarter 2008.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08.9)*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일본, 냉동식품 인증제도 강화

- *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식품업계 식품부정사건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음. 올 초, 일본 담배공사의 자회사인 JT푸드를 통해 수입된 중국산 냉동만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일본의 식육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정책기관 및 연구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업체인 미트호프는 돼지, 닭고기를 혼합해서 다진 제품을 100% 쇠고기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고, 제과업체 후지야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음.

- 일본냉동식품협회는 냉동식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임.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식품협회 회원기업에 대해 이 협회 인증마크를 상품에 첨부하게 하는 제도로, 대폭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쇄신은 1970년대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쇄신도에 따른 검사를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일본, 쌀가루 빵 판매 오조**

- 편의점 로손은 2008.9.9일부터 '쌀가루' 빵을 전국 지점에 판매하기로 함. 7월부터 일부 점포에서 쌀가루빵을 선행 판매한 결과 판매 호조를 보여 취급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임.
- 전량 국내산 쌀가루를 사용한 팔빵, 전빵, 카레빵, 미니 브레드는 소맥분을 사용한 빵에 비해 10~20엔 정도 비싼 130~180엔의 가격으로 전국 로손의 8,507개 점포에서 판매됨. 7월 하순부터 선행 판매된 관동지구에서는 발매 1주일째 쌀가루 팔빵 판매개수가 소맥분을 사용한 상품에 비해 50% 이상 더 팔리는 판매실적을 나타냄.

○ **신원경연료에 의욕을 보이는 일본기업**

- 올해 일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에코', '그린', '저탄소' 등 환경임.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면서 환경 테마는 더욱 부각됐음. 올해 1월 이데미츠 홍산 등 11개 회사가 합동 회사방식으로 '바이오 가스·넷·재판'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된 카네마츠가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음. 이 회사는 벌써 정제 장치를 통해 도시가스에 상응하는 품질의 가스를 얻는데 성공함.
- 축산 폐기물이나 하수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 가스는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사용하는 바이오 에탄올과 달리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걱정이 없고 메탄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음. 일본의 바이오가스 시장 규모는 잠재적으로 2,000억 엔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가정용 정미기 인기**

- 최근 일본에서는 농약 등에 오염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공업용 쌀을 소주·급식·과자 등 제조업체에 전매한 사건이 발생함. 미카

사푸드는 공업용 쌀 800톤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했으며, 이 쌀은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며 120개가 넘는 병원·보육원 등 시설에 급식재료로 공급되었음.

- 업계의 도덕적 해이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쌀을 기호에 맞춰 도정해 먹을 수 있는 가정용 정미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아키하바라 전자제품 유통점에 따르면, 가정용 정미기는 작년보다 두 배 정도 판매량이 늘었으며 주 고객은 30~50대 주부임. 민간조사기관인 GfK 재팬의 조사에서도 2008.8월 정미기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대비 40% 증가했으며 매출은 5월 이후 4개월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남.

○ 중국, 외자은행이 농촌으로 진출

- 2006.12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업금융기구의 농촌진출정책을 완화해 사회주의 신규 농촌건설을 지지할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 ‘의견’은 외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구의 농촌지역 은행 지점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힘.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3농(농촌, 농민,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우대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나서고 있음.
- 2007.12월 후베이 수이저우 청두에 HSBC 촌진은행 유한책임회사가 개업했으며 이는 중국 내 최초 외자은행 농촌지점임. 2008.9월 HSBC는 두 번째 농촌지점인 충칭다주 HSBC 촌진은행 개업 예정이며, 푸젠응안 촌진은행은 이미 은행감독위원회 지점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임. 씨티뱅크도 중국에서 최저 10개 농촌지점과 대출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품질보증수표인 ‘면검제도’ 전면 폐지 가능성 커

- 썬루사의 멜라민 분유 사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9.18일 성명을 통해 1999.12.5일 발표한 ‘제품 품질 업무 진일보 강화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에 포함된 식품 품질 검사 면제 제도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이로써 면검 제품 자격을 갖춘 식품 기업들이 제품 포장에 사용한 ‘면검제품’ 표시도 무효라고 발표함. 중국 국가질검총국에서는 단순히 식품 품질 검사 면제 제도 폐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 면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 정부가 2001년에 발표한 면검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품 품질 감독 검사 면제 관리 방법’도 2008.9.18일 폐지한다고 발표함.

- 국가 면검 제도는 중국 정부가 1999년부터 제품의 품질 제고 격려 및 우량 제품 강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 획득시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검사 및 생산·유통·수출과 관련된 각종 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중국, 캐나다산 육류제품 수입금지

- 중국 질량총국은 캐나다산 육류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함.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에서 리스테리어(李斯特)균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임. 캐나다 공공위생국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8.28일까지 15명이 사망했다고 함.

○ 중국, 독일 돼지고기 재개방

- 중국과 독일의 2년간에 걸친 협의에 따라, 중국은 독일산 돼지고기 시장을 다시 개방한다고 밝힘. 매년 60억 유로의 육류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독일은 돼지고기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열리게 되어 자국 양돈가구에 커다란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염화비료에 특별수출관세 150% 부과

- 중국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는 2008.9.1일부터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의 특별수출관세를 100%에서 150%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번 특별수출관세는 2008.12.31일까지 적용함.
- 이번 특별수출관세 인상은 비료의 해외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비료가격의 하락을 유도, 농민들의 경작원가 절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임. 비료에 대한 엄격한 국내가격 통제 때문에 요소의 경우 정책제한가는 약 252달러(1,725위안)/톤, 실제시장가는 약 351달러(2,400위안)/톤이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800달러/톤에 달하고 있음. 배 이상 벌어지는 가격차는 해외수출 증가로 이어져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

○ 대만, 멜라민 분유 사태로 연일 슬렁

- 행정원 위생서는 대만 내에도 중국 三鹿사의 이른바 ‘멜라민 분유’가 25톤(1,000봉지)이나 유입되었으나 신생아와 영아용 분유시장에는 유입되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함. 대만 정부는 9.25일(22:00)부터 중국산 식물성 단백질·비타민 크림·유제품 등 성분을 함유한 상품으로 검역 합격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강제 전면 몰수·전면 검역을 실시하여,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경우에는 강제 폐기, 검역에 통과할 경우에는 재판매를 허가

하기로 공포함. 또한, 멜라민 분유 전문조사팀을 결성, 9.27일에 중국에 파견·조사할 예정임.

- 대만 경제건설위원회는 대만의 중국산 분유와 식물성 단백질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10.11%, 16.18%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므로, 중국산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에 따른 소매상품 가격에 미치는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함.

○ 필리핀, 망고개배 줄어든다

- 필리핀 중부 Visayas 지역은 비료와 살충제의 가격상승과 낙후된 농업 기술력으로 인해 망고 생산이 상반기보다 10% 줄었음. Visayas 중부지역 농업 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망고 총생산량(1~7월)이 2007년에 50,210톤이었던 반면 2008년에는 45,250톤인 것으로 나타남. 망고의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건조망고(dried mango), 망고푸레(mango purees) 수출업자들은 해외의 높은 수요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임.

○ 싱가포르, 커피 소비량 대폭 증가

- 싱가포르 커피협회는 커피의 소비량이 올해 1만 2,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해외 체인업체들은 추가 매장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로컬 체인인 Ya Kun Kaya Toast는 전년대비 15% 매출이 신장되었음.
- 이것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커피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것과 정반대의 추세임.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경우, 7월 중 미국 내 600개의 점포를 폐쇄하고 1만 2,000명 이상의 고용원을 해고할 계획이었으며, 호주시장에서도 84개 매장 중 61개를 폐쇄했음.

○ 미얀마, 땅콩 밀수출 단속 강화

- 미얀마 상무부는 국경을 통한 땅콩의 밀수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대부분의 농작물에 대해 국내 공급 잉여분의 수출만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땅콩의 경우 정식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없음.
- 미얀마에서 땅콩오일은 주로 식용유로 사용되며, 미얀마인의 식생활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임. 따라서, 쌀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콩오일의 가격안정도 미얀마 정부입장에서는 민생안정의 중요한 과제임.

○ 카자흐스탄, 바이오에탄올 판매 본격화

- 2008년 봄부터 카자흐스탄 내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판매가 비오힘이라는 회사를 통해 본격화됐음. 비오힘은 지난 6월에 에너지 유통사들과 공

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5~7개 주유소에서 일차적으로 소매 판매를 실시했음. 비오힘과 소매공급을 체결한 회사는 총 10개사이며, 올해 말까지 바이오연료가 시판될 주유소는 약 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카자흐스탄 바이오연료는 주로 바이오에탄올이며 현재 시판중인 바이오연료의 에탄올 농도는 약 5~7%(옥탄가 92)임.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나눌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바이오에탄올을 먼저 상용화시킨 이유는 미국, 한국과 달리 디젤보다 휘발유 사용이 많기 때문임.

○ **인도, 옥수수 수출제한 철폐이나**

- 인도 농경식품부 장관인 사라드 파왈은 인도 동부지역에 발생한 홍수가 전국 옥수수 수확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옥수수 수출 제한 정책을 내달 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인도의 옥수수에 대한 수출제한은 국제원유가 상승과 더불어 11%가 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도 국내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었음.

○ **인도, 농업용 트랙터산업 15% 이상 성장**

- 2007/08 인도의 농업용 트랙터 판매대수가 30만 대로 전년대비 15% 이상 성장하였음. 트랙터 연간 생산량 중 90%는 국내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중국, 인근 국가에 수출되고 있음. 최근 정부가 농촌 기계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함에 따라 트랙터 이외에 관개장비, 수확기 등 농업 장비분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인도의 트랙터 주요 생산업체는 M&M사와 TAFE사로 각각 30%, 2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M&M, TAFE사 등은 농기계 구매자에 대한 파이낸싱 시스템을 개발해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 2006~2008년 식료품 가격 상승세 지속**

-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소비자 재화 및 용역과 관련해 실시한 물가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고 가장 많이 상승한 식품은 해산물로 연간 약 12.8%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2007년에는 전 식품 품목에 걸쳐 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야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1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신선식품들의 가격상승은 9~10% 사이로 집계됨.
- 2008년 상반기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식품 물가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유지류 경우, 2008년 상반기 중 두드러지게 가격이 상승했으며, 상

반기의 물가 상승률로 미뤄볼 때, 2008년 유지류의 가격상승률은 전년대비 1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빵, 곡물류에도 나타나면서 연 물가 상승률이 11.3%일 것으로 보인다.

○ **터키, 20년 이상된 트랙터 폐기 처분 결정**

- 터키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절약 및 농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년 이상된 트랙터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터키 전체 트랙터의 절반 이상인 70만 대의 트랙터가 폐기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터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2년간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외국계 트랙터 생산업체는 터키 내 70만 대 이상의 트랙터 교체수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터키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음.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기업은 물론이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기업까지 터키 트랙터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호주, 밀 독점 수출권 제도 폐지로 수출업체간 경쟁 예상**

- 호주 정부가 70년 만에 밀의 독점 수출권을 폐지하고 다수의 업체에게 수출권을 개방함으로써, 올 연말 본격적인 밀 수확기를 앞두고 현지 곡물 수출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음.
- 호주는 1939년, 밀 재배농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밀 수출창구를 AWB로 단일화했음. 그러나 AWB가 UN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이라크에 밀을 수출하면서 이라크 정부에 2억 9,000만 호주 달러(2억 4,000만 미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2006년 말 드러남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08.7월부터 밀 독점 수출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음.

2. 유럽

○ **EU, 농약 잔류 허용기준 관련 동향**

- 2008.9.1일부터 EU차원의 통일된 농약 잔류 허용기준 관련 규정(Regulation (EC) No 396/2005)이 시행되고 있음. 동 규정 시행 전에는 EU와 27개 회원국별 규정이 혼재하였고, 회원국별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EU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됨.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식품·사료 및 농약 종류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9.1일부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 극빈자 식량분배 프로그램 확대 제안**

- EU 집행위원회는 2008.9.17일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식량분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규정개정안을 제안함.
- 1987년부터 EU는 역내에서 과잉 생산된 농산물 재고를 극빈자에게 무료로 분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9개 회원국 1,300만 명이 식량분배 혜택을 받음. 그러나 EU 농정개혁을 통해 낮아진 농산물 재고 및 국제식량가격 폭등으로 식량분배여건은 악화됨. 이에 따라 식량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식량조달방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EU, 2008-2013 동물위생전략 실행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2007.9월 2008-2013 동물위생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2008.9.10일 동 전략 실행을 위한 4가지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 초안을 발표함.
- 4가지 분야별 실행계획은 1) EU 개입의 우선순위, 2) EU 동물위생 법률체계 구성, 3) 예방, 예찰 및 대비, 4) 연구, 혁신임.

○ **EU 집행위원회, 동물 도축시 동물복지 강화 제안**

- EU 집행위원회는 2008.9.18일 동물 도축시 동물보호수준을 제고하고 기절 및 도축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EU 회원국 간 균등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EU 관련지침(Directive 93/119)을 대체하는 신규 규정을 제안함.
- 제안된 신규규정에는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작업절차 개발, 도축장 설계시 동물복지 고려, 기절장비는 동물복지를 준수할 수 있는 사용자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EU, 공동농업정책(CAP) 미래 논의동향**

- EU 회원국 농업장관들은 2008.9.21일부터 9.23일까지 프랑스 Annecy시에서 비공식으로 개최된 농업각료이사회에서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함.
- 현 EU 의장국인 프랑스가 회원국에게 배포한 문서는 미래의 공동농업정책이 1) EU 내 식량안보 확보 2)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 식량공급 3) 농촌지역보조 및 고용창출 4) 경제활동과 생태적 효율성을 조화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감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시장상황과 완전히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함.

○ **유럽, 배 착량 전년대비 14% 감소, 10년 만에 최저 수확 예상**

- 2008년 유럽 배 수확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220만 톤으로 10년 만에 최

저 수확이 예상됨. 벨기에, 네덜란드의 배 수확이 3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전통적인 배 생산국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수확이 줄어들 전망임.

- 영국의 배, 사과 생산 감소는 꽃가루 매개체인 꿀벌 개체수의 감소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음. 영국에 서식하는 꿀벌 숫자는 기상악화, 살충제 남용, 기생 진드기의 급증에 따라 2007년 1/3이나 줄었음. 이에, 벌의 꽃가루 매개에 의존하는 배나 사과는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 가짜 농약으로 몸살

- 유럽작물보호협회(ECPA: Europe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농약시장의 5~7%가 가짜 농약의 불법 유입, 거래로 타격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거래되는 농약의 25% 정도가 가짜 농약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유럽작물보호협회는 EU 및 국가 차원의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2006년 EU에 유입되다 발각된 가짜 농약의 86%는 아시아 제품이었으며, 대부분 중국산으로 확인됨.

○ 러시아, 수입식품 의존도 심각

- 러시아에서 우유, 육류, 설탕 등은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과일, 채소 등은 국내산으로의 대체가 어려움. 육류제품과 유제품의 수입산 비중은 각각 35%,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작년 과일의 수입산 점유율은 65%에 이르렀음. 현재 러시아에서 인기있는 과일인 바나나, 사과, 감귤 중 두 가지는 러시아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음.

○ 아일랜드, 유기농 식품 판매 82% 증가

- 아일랜드 식료품 구매자들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변모하였음. 아일랜드 워터퍼드에서 열린 Bord Bia 전국 유기농 컨퍼런스(아일랜드 농림수산부 후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6.7월 기준 아일랜드 유기농 식품 시장 규모는 5,700만 유로에 불과했으나 지난 2년 동안 82% 성장하여 1억 400만 유로로 나타남. 아일랜드 농림수산부는 2012년까지 총 경작지의 5%를 유기농 작물 재배로 전환 유도할 계획임.

3. 아메리카

○ 미국, 2008년 농업법 영양으로 대미 수출 세관신고 온란 예상

-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2008년 농업법에 따라, 오는 12.15일부터

‘중이를 포함한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 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를 세관 서면신고서에 작성하도록 해 관련 수입업체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2008.12.15일부터 2009.4.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나무제품 세관신고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함.

○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거래권 축소 경매 실시

- 메릴랜드를 비롯한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회원 6개 주는 9.25일 1차 온라인 탄소 경매를 시행함. RGGI는 2005년에 메릴랜드, 델라웨어, 메인 주 등 총 10개 주가 모여 발족하였으며 전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미국 내 최초 강제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를 시행함. 구매자는 대형 발전소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차익을 노린 브로커들도 상당수가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수백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정부에서는 이를 저소득층 거주민들의 전력비 지원과 에너지 주택 내 에너지 효율성 증가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미국, 바이오에탄올 산업 연왕

- 미국 바이오 에탄올 산업은 1978년 에너지 정책법안을 기점으로,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2005년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성장함. 사이언스지는 제2세대 바이오 에탄올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셀룰로오스 에탄올(낙엽·나무·작물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이 2~3년 내에 상용화될 경우, 연간 600억 갤런의 에탄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전체 운송연료의 30% 정도까지 대체가 가능한 규모로 분석함.
- 2007.12.19일 미국 행정부는 2022년까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1,350억ℓ(360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된 에너지 법안에 서명했음. Ethanol Producer Magazine은, 지난 4월 텍사스 등 일부 의원들의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Renewable Fuels Standard: RFS) 완화 요구에도 2008년 의무사용량인 90억 갤런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함.

4. 아프리카

○ 모로코, 밀 수요 급증으로 수입확대

-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의 식문화는 파스타와는 거리가 멀며, 파스타면 소비량도 근접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편이었음.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외식문화 발달과 패스트푸드점의 확산 등 식문화의 변화로 밀 수요량이 크게 증가함.

- 모로코 외환청의 2008년 상반기 무역수지 보고에 따르면, 모로코 주요 수입 품목 42개 중 밀이 상위 2위이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은 수입품목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인근 이슬람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모로코 내 유통되는 수입 밀의 양은 더욱 늘었으나, 아직까지 모로코 당국에 의한 국내 밀 재배산업 보호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음. 농업, 수공업 분야에 있어서 인력 집중 양성 계획을 발표함. 현재 모로코 GDP에서 각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호텔, 외식업) 54.4%, 공업(제조업, 광업, 에너지 및 건설업) 29.0%, 농수산업 16.6%임.
- 모로코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발표한 'Maroc Vert'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의 농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음. 모로코 전역에 21개의 농업 실습훈련소(CFA)를 신설하며, 농업 기술 관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기술 양성을 장려할 예정임. 이 계획안에 책정된 예산은 총 4,600만 달러로 모로코 정부(노동부, 직업 훈련부, 농수산부)가 조달함.

세계농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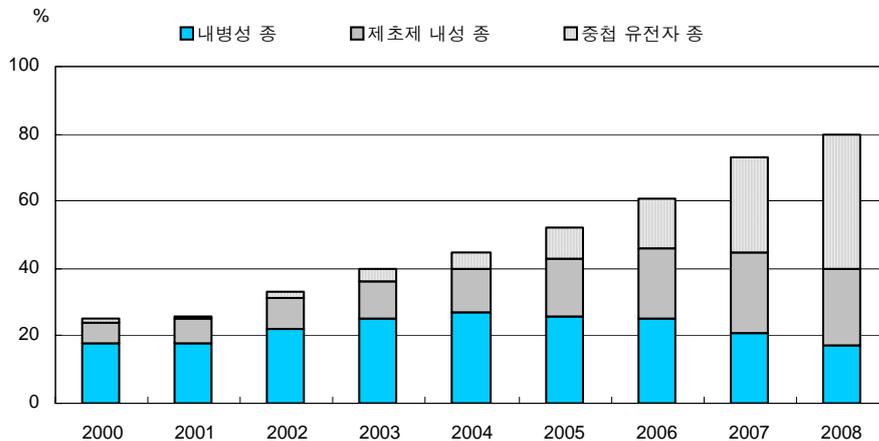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세계 쇠고기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이번 달에는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미국의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s) 생산 동향에 관한 내용을 그래프로 담았다.

1996년 이래로 미국 농민들은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재배해 왔다. 그 중에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수확이 가능한 대두와 면화의 재배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병충해에 강한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 재조합된(Insect-resistant) 면화와 옥수수 재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가농업통계청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에 따르면, 일부 주들은 전체 옥수수 생산면적의 81~86%, 전체 대두 생산면적의 88~90%, 전체 면화 생산면적의 81~93%를 차지하고 있다.¹⁾

그림 1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생산량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BiotechCr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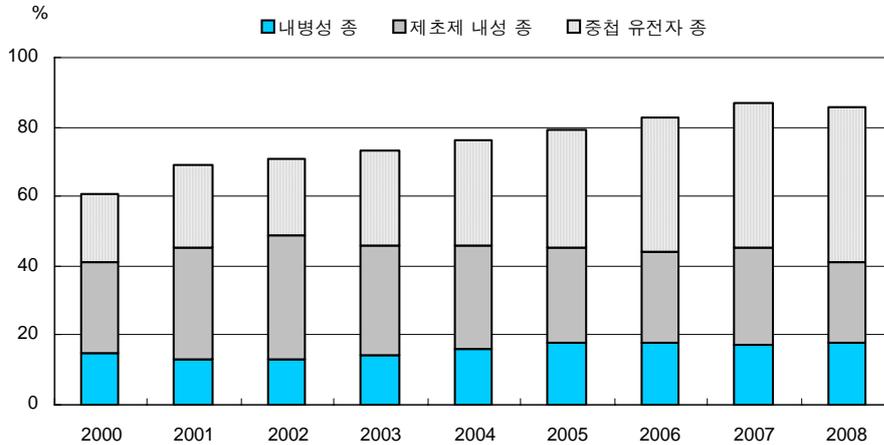
2000~2008년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생산 면적은 연평균 약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중첩 유전자 종(Stacked Gene Varieties)²⁾의 비중이 2000년

1) 옥수수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위스콘신이 주요 생산지역이다. 이 중 노스다코타와 텍사스는 2005년부터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면화는 알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등에서 주로 생산한다. 이 중 알라바마, 미주리, 테네시는 2005년부터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두는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등에서 많이 생산한다.

2) 중첩 유전자 종(Stacked Gene)은 제초제 내성(Herbicide Tolerance-HT)과 병충해 저항성(Insect Resistance-BT)을 모두 지닌 유전자 재조합 종을 말한다.

1%에서 2008년 40%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내병성 옥수수(2000년 18%에서 17%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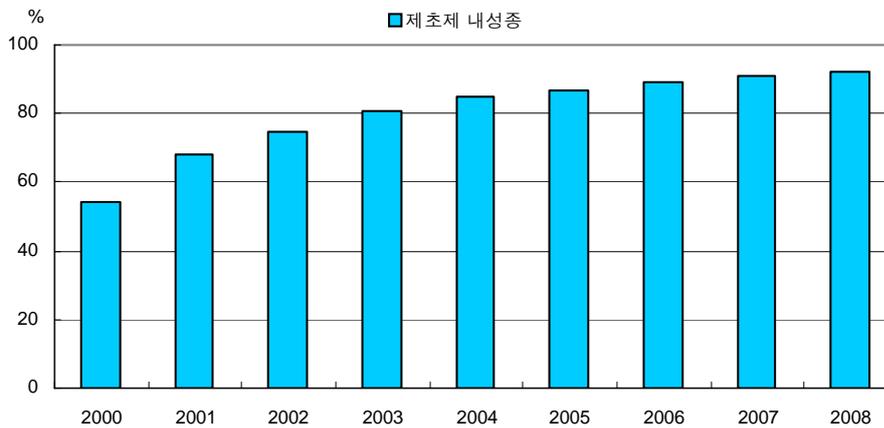
그림 2 유전자 재조합 면화 생산량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BiotechCrops/>)

유전자 재조합 면화 생산 면적은 연평균 약 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중첩 유전자 종(Stacked Gene Varieties)의 비중이 2000년 20%에서 2008년 45%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병성 종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반면, 제초제 내성종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림 3 유전자 재조합 대두 생산량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BiotechCrops/>)

유전자 재조합 대두의 생산 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0~2004년 연평균 생산 면적 증가율은 5%이었으나, 2005~2008년에는 0.7%로 둔화되었다. 대두는 옥수수, 면화와 달리 제초제 내성종만 생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작성: 유찬희, 조민지

세계 쇠고기 통계

표 1 한국의 국가별 쇠고기 수입액 및 수입량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0	미국	533,501,408	73.5	146,343,280	51.1
	호주	153,831,653	5.9	78,044,638	-3.0
	캐나다	67,223,686	108.7	20,877,133	98.9
	뉴질랜드	29,691,482	57.7	12,479,452	36.7
	우루과이	9,734,767	0.0	5,520,426	0.0
	일본	621,274	-44.3	379,204	-32.2
	우크라이나	199,314	0.0	84,752	0.0
	중국	93,324	23,231.0	19,440	32,849.2
	스웨덴	56,884	-49.6	12,001	-50.3
	오스트리아	31,816	-77.9	12,639	-16.9
	덴마크	23,654	-83.4	6,300	-89.6
	필리핀	6,198	0.0	2,088	0.0
	핀란드	205	-99.7	30	-99.8
	기타국	200	0.0	20	0.0
합계		795,015,865	57.3	263,781,403	33.5
2001	미국	361,688,538	-32.2	118,264,738	-19.2
	호주	139,429,345	-9.4	65,684,119	-15.8
	캐나다	25,553,922	-62.0	9,962,384	-52.3
	뉴질랜드	24,511,558	-17.4	11,678,110	-6.4
	우루과이	3,101,763	-68.1	1,712,663	-69.0
	일본	730,728	17.6	458,162	20.8
	중국	243,999	161.5	180,898	830.5
	아르헨티나	82,403	0.0	35,903	0.0
	스웨덴	30,747	-45.9	19,584	63.2
	브라질	14,797	0.0	19,452	0.0
	필리핀	3,460	-44.2	1,248	-40.2
	인도	215	0.0	60	0.0
	네덜란드	82	0.0	32	0.0
	합계		555,391,557	-30.1	208,017,353
2002	미국	655,876,442	81.3	227,641,503	92.5
	호주	209,707,347	50.4	93,876,567	42.9
	뉴질랜드	43,348,368	76.8	19,803,613	69.6
	캐나다	37,358,443	46.2	16,441,191	65.0
	우크라이나	147,781	0.0	49,389	0.0
	오스트리아	136,387	0.0	29,673	0.0
	싱가포르	69,192	0.0	22,848	0.0
	중국	44,100	-81.9	101,813	-43.7
	네덜란드	43,618	5,3092.7	31,682	98,906.2
	헝가리	41,900	0.0	23,942	0.0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2	프랑스	14,995	0.0	1,303	0.0
	필리핀	10,496	203.4	3,972	218.3
	브라질	5,026	-66.0	1,937	-90.0
	몽고	3,898	0.0	2,475	0.0
	합계	946,807,993	70.5	358,031,908	72.1
2003	미국	886,777,880	35.2	248,653,696	9.2
	호주	197,437,698	-5.9	78,017,867	-16.9
	뉴질랜드	71,718,319	65.4	28,961,923	46.2
	캐나다	20,627,225	-44.8	8,066,346	-50.9
	오스트리아	128,238	-6.0	35,220	18.7
	칠레	94,445	0.0	35,909	0.0
	네덜란드	73,978	69.6	28,566	-9.8
	중국	57,556	30.5	116,377	14.3
	싱가포르	42,386	-38.7	14,577	-36.2
	일본	16,510	0.0	3,770	0.0
	필리핀	9,996	-4.8	3,720	-6.3
	인도네시아	8,293	0.0	8,250	0.0
	덴마크	4,937	0.0	1,528	0.0
	브라질	3,452	-31.3	3,711	91.6
	아르헨티나	2,800	0.0	374	0.0
	몽고	775	-80.1	541	-78.1
	가나	184	0.0	25	0.0
	멕시코	66	0.0	24	0.0
	합계	1,177,004,738	24.3	363,952,424	1.7
	2004	호주	355,378,411	80.0	99,070,624
뉴질랜드		138,690,668	93.4	47,735,550	64.8
미국		103,232,948	-88.4	27,789,627	-88.8
멕시코		2,207,388	334,4427.3	852,324	355,1250.0
캐나다		361,999	-98.2	348,204	-95.7
안도라		215,406	0.0	10,650	0.0
네덜란드		66,814	-9.7	24,899	-12.8
우크라이나		62,271	0.0	17,768	0.0
오스트리아		56,968	-55.6	15,396	-56.3
몽고		31,996	4028.5	29,088	5276.7
남아공		29,710	0.0	8,242	0.0
필리핀		24,947	149.6	11,945	221.1
브라질		16,600	380.9	18,000	385.0
중국		7,467	-87.0	17,100	-85.3
합계		600,383,593	-49.0	175,949,417	-51.7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5	호주	539,802,983	51.9	139,807,727	41.1
	뉴질랜드	178,652,718	28.8	51,830,634	8.6
	멕시코	11,789,881	434.1	3,585,413	320.7
	미국	3,995,952	-96.1	760,473	-97.3
	네덜란드	254,600	281.1	109,975	341.7
	중국	133,005	1681.2	67,959	297.4
	캐나다	91,533	-74.7	32,863	-90.6
	프랑스	75,062	0.0	14,425	0.0
	안도라	55,000	-74.5	18,263	71.5
	오스트리아	51,903	-8.9	20,859	35.5
	헝가리	45,859	0.0	15,399	0.0
	브라질	42,762	157.6	36,023	100.1
	몬트세라트	41,620	0.0	8,796	0.0
	남아공	24,814	-16.5	5,663	-31.3
	필리핀	24,152	-3.2	12,045	0.8
	나미비아	20,984	0.0	2,558	0.0
	몽고	18,358	-42.6	26,786	-7.9
	말레이시아	8,726	0.0	1,100	0.0
	홍콩	7,491	0.0	867	0.0
	폴란드	4,233	0.0	4,980	0.0
일본	1,093	0.0	39	0.0	
합계	735,142,729	22.4	196,362,847	11.6	
2006	호주	693,672,515	28.5	180,386,253	29.0
	뉴질랜드	163,457,538	-8.5	49,038,097	-5.4
	멕시코	21,477,194	82.2	6,790,524	89.4
	우루과이	241,341	0.0	70,089	0.0
	아르헨티나	50,047	0.0	13,406	0.0
	미국	30,392	-99.2	7,972	-99.0
	필리핀	23,972	-0.7	13,527	12.3
	네덜란드	15,556	-93.9	5,021	-95.4
	몽고	8,528	-53.5	13,325	-50.3
	중국	249	-99.8	140	-99.8
합계	878,977,332	19.6	236,338,354	20.4	
2007	호주	761,560,274	9.8	179,941,761	-0.2
	뉴질랜드	161,907,788	-0.9	44,890,712	-8.5
	미국	94,024,806	309,273.5	14,112,009	17,6919.7
	멕시코	19,001,285	-11.5	5,365,783	-21.0
	우루과이	443,875	83.9	254,758	263.5
필리핀	48,635	102.9	21,721	60.6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7	브라질	41,501	0.0	8,397	0.0
	스페인	23,806	0.0	6,409	0.0
	합계	1,037,051,970	18.0	244,601,550	3.5
2008	호주	480,637,223	-1.6	105,482,285	-7.6
	뉴질랜드	129,026,008	0.4	35,152,482	-0.5
	미국	43,503,853	1.5	6,498,537	5.8
	멕시코	13,601,622	1.5	3,809,678	3.3
	우루과이	100,196	-60.4	53,354	-62.1
	브라질	83,170	0.0	16,798	0.0
	중국	25,955	0.0	12,720	0.0
	필리핀	18,013	-35.0	8,686	-30.1
	아르헨티나	15,644	0.0	5,604	0.0
	키르기스스탄	2,260	0.0	249	0.0
	몽고	540	0.0	102	0.0
	이탈리아	522	0.0	8	0.0
	오스트리아	426	0.0	53	0.0
	일본	43	0.0	1	0.0
	합계	667,015,475	-1.0	151,040,557	-5.3

주: 쇠고기는 AG코드 22101임. 2008년은 8월까지의 합임.
전년대비성장률은 수입이 있었던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표 2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통계 (2007년)

국가	총 공급량 Total Supply			수출량 Total Exports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가나	49	0.07	52	-	-	28
가봉	15	0.02	62	-	-	28
과테말라	66	0.10	49	1	0.01	26
그루지야	98	0.14	40	2	0.03	22
남아프리카공화국	694	1.02	15	5	0.07	19
뉴질랜드	622	0.91	17	496	6.52	6
니카라과	118	0.17	38	83	1.09	12
도미니카공화국	50	0.07	50	-	-	28
러시아	2,400	3.52	8	8	0.11	18
레바논	94	0.14	41	-	-	28
리비아	34	0.05	54	-	-	28
마케도니아	31	0.05	56	-	-	28
말레이시아	182	0.27	32	2	0.03	22
멕시코	2,610	3.83	6	42	0.55	15
미국	13,768	20.19	1	649	8.53	4
베네수엘라	585	0.86	18	-	-	28
베트남	345	0.51	28	-	-	28
벨로루시	270	0.40	29	-	-	28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4	0.04	59	-	-	28
브라질	9,500	13.93	2	2,189	28.78	1
사우디아라비아	125	0.18	36	-	-	28
세네갈	67	0.10	48	-	-	28
스위스	154	0.23	35	2	0.03	22
싱가포르	33	0.05	55	5	0.07	19
아랍에미리트	87	0.13	42	-	-	28
아르헨티나	3,205	4.70	5	532	7.00	5
아제르바이잔	84	0.12	44	2	0.03	22
알바니아	50	0.07	50	-	-	28
알제리	165	0.24	33	-	-	28
앙골라	230	0.34	30	-	-	28
엘살바도르	48	0.07	53	-	-	28
오만	21	0.03	60	-	-	28

표 2 세계 각국 쇠고기 수급 통계 (2007년)

수입량 Total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Country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23	0.32	33	46.94	20	Ghana
14	0.19	40	93.33	4	Gabon
6	0.08	48	9.09	42	Guatemala
23	0.32	33	23.47	30	Georgia, Republic of
24	0.33	31	3.46	46	South Africa, Republic of
12	0.17	42	1.93	50	New Zealand
-	0.00	59	0.00	59	Nicaragua
4	0.06	54	8.00	43	Dominican Republic
1,030	14.23	2	42.92	21	Russian Federation
40	0.55	24	42.55	22	Lebanon
27	0.37	30	79.41	12	Libya
21	0.29	35	67.74	13	Macedonia, Republic of
154	2.13	10	84.62	9	Malaysia
410	5.67	5	15.71	36	Mexico
1,384	19.12	1	10.05	40	United States
210	2.90	9	35.90	28	Venezuela
75	1.04	22	21.74	33	Vietnam
-	0.00	59	0.00	59	Belarus
9	0.12	45	37.50	27	Bosnia and Herzegovina
30	0.41	26	0.32	54	Brazil
101	1.40	17	80.80	11	Saudi Arabia
15	0.21	39	22.39	31	Senegal
24	0.33	31	15.58	37	Switzerland
33	0.46	25	100.00	1	Singapore
77	1.06	21	88.51	8	United Arab Emirates
5	0.07	50	0.16	57	Argentina
10	0.14	44	11.90	39	Azerbaijan, Republic of
8	0.11	46	16.00	35	Albania
80	1.11	20	48.48	19	Algeria
135	1.87	13	58.70	14	Angola
28	0.39	29	58.33	15	El Salvador
17	0.23	37	80.95	10	Oman

국가	총공급량 Total Supply			수출량 Total Exports		
	1000톤, 지육기준	비율%	순위	1000톤, 지육기준	비율%	순위
오스트레일리아	2,234	3.28	9	1,400	18.41	2
온두라스	29	0.04	57	3	0.04	21
요르단	75	0.11	45	-	-	28
우루과이	554	0.81	20	385	5.06	8
우즈베키스탄	472	0.69	22	-	-	28
우크라이나	567	0.83	19	50	0.66	14
유럽연합27	8,813	12.93	3	139	1.83	10
이란	458	0.67	23	-	-	28
이스라엘	188	0.28	31	-	-	28
이집트	710	1.04	14	-	-	28
인도	2,500	3.67	7	735	9.66	3
일본	1,293	1.90	11	-	-	28
자메이카	27	0.04	58	-	-	28
중국	7,485	10.98	4	81	1.07	13
칠레	399	0.59	25	13	0.17	17
카자흐스탄	380	0.56	26	-	-	28
캐나다	1,601	2.35	10	457	6.01	7
코스타리카	74	0.11	46	16	0.21	16
콜롬비아	824	1.21	13	110	1.45	11
콩고	19	0.03	61	-	-	28
쿠웨이트	87	0.13	42	-	-	28
쿠트디부아르	73	0.11	47	-	-	28
타이완	107	0.16	39	-	-	28
터키	643	0.94	16	-	-	28
파라과이	426	0.62	24	197	2.59	9
파키스탄	1,119	1.64	12	-	-	28
페루	165	0.24	33	-	-	28
필리핀	377	0.55	27	1	0.01	26
한국	532	0.78	21	-	-	28
홍콩	124	0.18	37	-	-	28
전세계	68,179	100.00		7,605	100.00	

수입량 Total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Country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6	0.08	48	0.27	55	Australia
5	0.07	50	17.24	34	Honduras
70	0.97	23	93.33	4	Jordan
4	0.06	54	0.72	51	Uruguay
2	0.03	57	0.42	53	Uzbekistan, Republic of
13	0.18	41	2.29	49	Ukraine
638	8.82	4	7.24	45	EU-27
100	1.38	18	21.83	32	Iran
105	1.45	15	55.85	17	Israel
300	4.15	7	42.25	23	Egypt
-	0.00	59	0.00	59	India
686	9.48	3	53.05	18	Japan
11	0.15	43	40.74	24	Jamaica and Dep
5	0.07	50	0.07	58	China, Peoples Republic of
151	2.09	12	37.84	26	Chile
30	0.41	26	7.89	44	Kazakhstan, Republic of
242	3.34	8	15.12	38	Canada
7	0.10	47	9.46	41	Costa Rica
4	0.06	54	0.49	52	Colombia
17	0.23	37	89.47	6	Congo(Brazzaville)
85	1.17	19	97.70	2	Kuwait
18	0.25	36	24.66	29	Coted' Ivoire
102	1.41	16	95.33	3	Taiwan
-	0.00	59	0.00	59	Turkey
1	0.01	58	0.23	56	Paraguay
30	0.41	26	2.68	48	Pakistan
5	0.07	50	3.03	47	Peru
153	2.11	11	40.58	25	Philippines
308	4.26	6	57.89	16	Korea, Republic of
110	1.52	14	88.71	7	Hong Kong
7,237	100.00		10.61		World

국가	생산량 Production			총국내소비량 Total Dom. Consumption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가나	26	0.04	46	49	0.08	51
가봉	1	0.00	61	15	0.03	62
과테말라	60	0.10	39	65	0.11	47
그루지아	75	0.12	36	96	0.16	39
남아프리카공화국	670	1.11	13	689	1.15	15
뉴질랜드	610	1.01	15	126	0.21	35
니카라과	118	0.20	32	35	0.06	53
도미니카공화국	46	0.08	43	50	0.08	49
러시아	1,370	2.27	9	2,392	3.99	7
레바논	54	0.09	41	94	0.16	40
리비아	7	0.01	55	34	0.06	54
마케도니아	10	0.02	53	31	0.05	55
말레이시아	28	0.05	45	180	0.30	30
멕시코	2,200	3.64	7	2,568	4.28	6
미국	12,096	20.02	1	12,830	21.39	1
베네수엘라	375	0.62	22	585	0.98	17
베트남	270	0.45	25	345	0.58	25
벨로루시	270	0.45	25	270	0.45	26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	0.02	51	24	0.04	59
브라질	9,470	15.67	2	7,311	12.19	4
사우디아라비아	24	0.04	47	125	0.21	36
세네갈	52	0.09	42	67	0.11	46
스위스	130	0.22	31	152	0.25	34
싱가포르	-	0.00	62	28	0.05	56
아랍에미리트	10	0.02	53	87	0.15	41
아르헨티나	3,200	5.30	5	2,673	4.46	5
아제르바이잔	74	0.12	37	82	0.14	43
알바니아	42	0.07	44	50	0.08	49
알제리	85	0.14	34	165	0.28	32
앙골라	95	0.16	33	230	0.38	27
엘살바도르	20	0.03	49	48	0.08	52
오만	4	0.01	58	21	0.04	60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총 국내소비량)		Country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	-	8	-	8	Ghana
-	-	8	-	8	Gabon
-	-	8	-	8	Guatemala
-	-	8	-	8	Georgia, Republic of
-	-	8	-	8	South Africa, Republic of
-	-	8	-	8	New Zealand
-	-	8	-	8	Nicaragua
-	-	8	-	8	Dominican Republic
-	-	8	-	8	Russian Federation
-	-	8	-	8	Lebanon
-	-	8	-	8	Libya
-	-	8	-	8	Macedonia, Republic of
-	-	8	-	8	Malaysia
-	-	8	-	8	Mexico
289	49.07	1	2.25	6	United States
-	-	8	-	8	Venezuela
-	-	8	-	8	Vietnam
-	-	8	-	8	Belarus
-	-	8	-	8	Bosnia and Herzegovina
-	-	8	-	8	Brazil
-	-	8	-	8	Saudi Arabia
-	-	8	-	8	Senegal
-	-	8	-	8	Switzerland
-	-	8	-	8	Singapore
-	-	8	-	8	United Arab Emirates
-	-	8	-	8	Argentina
-	-	8	-	8	Azerbaijan, Republic of
-	-	8	-	8	Albania
-	-	8	-	8	Algeria
-	-	8	-	8	Angola
-	-	8	-	8	El Salvador
-	-	8	-	8	Oman

국가	생산량 Production			총국내소비량 Total Dom. Consumption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오스트레일리아	2,197	3.64	8	743	1.24	12
온두라스	24	0.04	47	26	0.04	58
요르단	5	0.01	56	75	0.13	44
우루과이	550	0.91	16	169	0.28	31
우즈베키스탄	470	0.78	19	472	0.79	20
우크라이나	539	0.89	17	502	0.84	19
유럽연합27	8,175	13.53	3	8,674	14.46	2
이란	358	0.59	23	458	0.76	21
이스라엘	83	0.14	35	188	0.31	29
이집트	410	0.68	21	710	1.18	14
인도	2,500	4.14	6	1,765	2.94	8
일본	504	0.83	18	1,182	1.97	9
자메이카	16	0.03	50	27	0.05	57
중국	7,480	12.38	4	7,404	12.34	3
칠레	248	0.41	27	386	0.64	22
카자흐스탄	350	0.58	24	380	0.63	23
캐나다	1,310	2.17	10	1,099	1.83	11
코스타리카	67	0.11	38	58	0.10	48
콜롬비아	820	1.36	12	714	1.19	13
콩고	2	0.00	59	19	0.03	61
쿠웨이트	2	0.00	59	87	0.15	41
쿠트디부아르	55	0.09	40	73	0.12	45
타이완	5	0.01	56	107	0.18	38
터키	615	1.02	14	615	1.03	16
파라과이	425	0.70	20	229	0.38	28
파키스탄	1,089	1.80	11	1,119	1.87	10
페루	160	0.26	30	165	0.28	32
필리핀	224	0.37	28	376	0.63	24
한국	219	0.36	29	522	0.87	18
홍콩	14	0.02	52	124	0.21	37
전세계	60,423	100.00		59,985	100.00	

주: 돼지고기는 Meat, Swine을 의미함.
 자료: <http://www.fas.usda.gov/psdonline/>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총 국내소비량)		Country
1000톤, 지육기준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91	15.45	3	12.25	1	Australia
-	-	8	-	8	Honduras
-	-	8	-	8	Jordan
-	-	8	-	8	Uruguay
-	-	8	-	8	Uzbekistan, Republic of
15	2.55	6	2.99	5	Ukraine
-	-	8	-	8	EU-27
-	-	8	-	8	Iran
-	-	8	-	8	Israel
-	-	8	-	8	Egypt
-	-	8	-	8	India
111	18.85	2	9.39	2	Japan
-	-	8	-	8	Jamaica and Dep
-	-	8	-	8	China, Peoples Republic of
-	-	8	-	8	Chile
-	-	8	-	8	Kazakhstan, Republic of
45	7.64	4	4.09	4	Canada
-	-	8	-	8	Costa Rica
-	-	8	-	8	Colombia
-	-	8	-	8	Congo(Brazzaville)
-	-	8	-	8	Kuwait
-	-	8	-	8	Coted' Ivoire
-	-	8	-	8	Taiwan
28	4.75	5	4.55	3	Turkey
-	-	8	-	8	Paraguay
-	-	8	-	8	Pakistan
-	-	8	-	8	Peru
-	-	8	-	8	Philippines
10	1.70	7	1.92	7	Korea, Republic of
-	-	8	-	8	Hong Kong
589	100.00		0.98		World

M45-97 세계농업 제97호 (2008. 9)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8년 9월

발 행 2008년 9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